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제9차 신학포럼

- 발표 -

송지섭 박사 · 서지마 박사

- ❖ 일시 : 2022년 2월 14일(월)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 ❖ 장소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본관4층 설교센터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KOREAN SOCIETY OF EVANGELICAL PRACTICAL THEOLOGY

목 차

·일 정 표 ----- 4

·알리는 말씀 ----- 5

·발표1: "신천지에 대처하는 설교를 위한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교리)적 해석법"

❖ 송지섭 박사 ----- 7

·발표2: "고난 설교를 위한 설교학적 제안: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를 중심으로"

❖ 서지마 박사 ----- 34

일 정 표

순서 및 담당(전체 진행: 임도균 교수)

10:30-10:43

- 개회사 및 환영 인사
- 개회기도
- 학회장 인사 : 박태현 교수
- 발표자 소개

10:43-11:23

- 발표1 : 송지섭 박사(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천지에 대처하는 설교를 위한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교리)적 해석법”
- 발표2 : 서지마 박사(프리토리아 신학대학교)
“고난 설교를 위한 설교학적 제안: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를 중심으로”
- 질의 및 응답: 각 15분 정도 발표 후 질의응답(약 10분 예정)

11:23-11:35

- 신진학자 격려금 전달식 : 박태현 교수
- 학회 광고
- 폐회기도

11:35-11:40

- 기념사진 촬영 : 이상무 간사

11:40-13:00

- 식사장소 이동 및 식사 교제
식당주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5 엘포트몰 3층(거궁 광교점)

알리는 말씀

1.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제9차 신학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발표와 진행의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포럼이 끝난 후 중식이 제공되오니,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 본 학회는 실천신학자들과 현장목회자들의 지혜를 모아 성경적 복음주의 신학정립과 실천신학적 원리탐구 및 구체적 방법론을 교회와 사회현장에 제안하려는 목적으로 1997년 10월 설립되었습니다. 2000년에 창간한 「복음과 실천신학」은 2012년 한국연구재단(KCI)의 등재지로 선정되었고 매년 4회(2월 20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발행하며, 2020년 기준(21년 통계 발표), KCI 영향력 지수가 기독교 신학 분야 전체 학술지 중, 1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4. 「복음과 실천신학」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복실 홈페이지(<http://kept1997.kr>)에서 논문검색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온라인을 통한 논문 검색과 논문 투고,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제42회 정기학술대회가 2022년 05월 21일(토) 산본 양문교회(담임: 정영교 목사)에서 “21세기 포스트모던 사회와 한국 교회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발표 1]

신천지에 대처하는 설교를 위한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교리)적 해석법



송지섭 박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Ph. D.)

국문 초록

한국 교계의 신천지에 대한 대부분의 대처는 그들의 포교방식을 알리거나 교인이 신천지에 미혹되면 전문 상담소를 통하여 회심 상담 및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문제 발생 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있지 않고, 문제 발생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에 있다. 이제는 교회에 신천지와 그 이후의 아류 집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영적 백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회의 직분이나 신앙의 연륜에 상관없이 신천지에 미혹되는 이유는 교회에서 분별력과 신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교리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이단들의 자의적인 성경해석과 교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 신격화된 이단 교주 등장의 필연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천지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왜곡한다. 따라서 예방교육의 차원으로 교회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적 해석'에 기초한 교리 설교가 정기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설교자에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 프레임(그리스도 중심의 주해, 신학/교리)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신천지에 대처하는 설교를 위한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교리)적 해석법을 소개한다.

주제어: 예방, 신천지 대처, 교리 설교, 그리스도 중심, 신학(교리)적 해석법

I. 들어가는 글

최근 코로나 사태와 연관된 신천지 문제를 통해 이단문제가 단순히 교리적 문제를 넘어, 누군가의 삶을 빼앗고 파괴할 수 있는 사회적 역기능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¹⁾ 그동안 한국교계의 신천지에 대한 대부분의 대처는 그들의 포교방식을 알리거나 교인이 신천지에 미혹되면 전문 상담소를 통하여 회심 상담 및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문제 발생 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있지 않고, 문제 발생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에 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직분이나 신앙의 연륜에 상관없이 신천지에 미혹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교회에서 분별력과 신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교리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²⁾ 신천지 전문가 신현옥은 신천지에 미혹된 자들에게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없거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과 기본적으로 신앙의 정통교리에 잘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하였다.³⁾ 교리 없는 양육은 이단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신자의 분명한 정체성 상실, 구원의 확신 및 이단의 분별력 부족 등 신앙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통분모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적 해석에 기초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다. 한국이단들의 자의적인 성경해석과 교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 신격화된 이단 교주 등장의 필연성을 강조하는데 있다. 이단 교주는 자신이 재림 그리스도인 것을 입증하여 세력을 확대하고 조직을 체계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성경구절들을 취사선택하여 왜곡한다.⁴⁾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천지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왜곡한다.

연구자는 교리교육의 다양한 수단 중에 설교를 제안한다. 설교는 대상에 제한 없이 모든 교인에게 일시에 교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을 정경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과 인간 타락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 설교는 그리스도를 지향해야 할 당위성을 지닌다. 성경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오심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속적 역사이며, 동시에 진정한 필요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타락한 인간실존의 본질 때문이다.⁵⁾ ‘그리스도 중심성’은 성경을 설교하는 설교자의 ‘신학’에 직결되는 것이다.⁶⁾

-
- 1) 탁지일, 『이단이 알고 싶다』 (파주: 넥서스, 2020), 4, 190.
 - 2) 이승진, “목회 사역과 교리 설교”,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41 (2008): 28; 정창균, “위기 상황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현실과 교리 설교의 회복”, 『신학정론』 32 (2014): 351; 박유신, 『신천지 대해부』 (수원: 기독교포털뉴스, 2020), 406; 최병규, 『이단 진단과 대응』 (서울: Grace은혜출판사, 2004), 172-73.
 - 3) 신현옥, “신천지 급성장의 미스터리”, 『신천지, 왜 종교 사기인가』 (수원: 기독교포털뉴스, 2019), 139-40.
 - 4) 탁지일, 『이단이 알고 싶다』, 55.
 - 5)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2002), 41-42; Bryan Chapell, *Christ-centered preaching*, 엄성욱 역, 개정증보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서울: 은성, 2016), 59-66.
 - 6) 본 연구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적 해석을 강조한다. 이는 총신대학교 설교학 교수 김

신학은 성경해석에 영향을 주는 관점에 해당하는 요소로써 설교자의 성경해석이 나 주관성(신학적 전제)을 교정해줄 교리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⁷⁾ 신천지의 교리도 이만희 중심의 신학에 기초한 성경해석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만희 중심의 신학은 곧 성경해석의 기초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는 이단 신천지의 정체를 교리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신천지에 미혹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설교를 위한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교리)적 해석의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려 한다.

II. 펴는 글

1. 신천지에 대처하는 설교를 위한 신학

신천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를 위해 먼저, 신천지 해석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교리를 파악하고 규명할 필요가 있다. 신천지 해석은 핵심 교리와 상관없는 별개의 독립된 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 신천지 핵심 교리를 구성하는 이만희 중심의 해석

(1) 신천지의 성경론

이만희는 그의 성경해석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한글 성경이 가장 정확하다고 전제한다.⁸⁾ 이러한 주장은 신천지의 수많은 해석의 오류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토대

창훈이 경계하는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사라지고 단순히 그리스도만을 발견하거나 구속만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따르도록 요청받는 기준이자 궁극적인 표본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강조하려는 접근방식은 김창훈이 표현하는 방식을 빌려 표현한다면 '삼위일체론적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 할 수 있다. 김창훈, 『하나님 중심적 설교』 (서울: 호밀리아, 2016), 588-91; 구약을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당위성을 공유하면서도, 구약에서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방법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이견들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와 관련한 해석학적/설교학적 이슈들을 총망라하는 것과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김대혁, “본문성이 드러나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제안”, 『복음과 실천신학』 42 (2017): 10.

7) Richard Lischer, *A Theology of Preaching: The Dynamics of the Gospel*, ed. William D. Thompson (Nashville, Abingdon, 1981), 17; G. K. Beale,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김귀탁 역, 『신약성경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23;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개정판 (서울: 요단출판사, 2017), 39.

8) 이만희, 『성도와 천국』 (안양: 도서출판 신천지, 1995), 9. 신천지는 성경을 인용할 때 주

를 제공한다. 이만희는 영계의 영들과 육계의 신천지 신도들의 육체가 하나 되어 탄생된 ‘신인합일체’라는 존재가 천년성에서 육신의 죽음 없이 영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만희는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약속한 목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아야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천국과 영생(육체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마 11:27; 요 17:3).⁹⁾ 여기서 약속한 목자는 이만희를 가리킨다. 이만희는 항상 예수를 언급하지만 정작 예수의 영향력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만희에게 예수는 자신이 재림 주라는 도식을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¹⁰⁾

이만희는 성경의 내용을 크게 역사, 교훈, 예언, 실상으로 구분한다. 예언은 장래사를 의미하며, 실상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일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신천지는 그 실상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이라고 가르친다. 이 실상은 예언이 비유로 되어있다는 신천지의 주장과 연결된 단어이다. 비유와 연결되어 사용되면 비유의 실제적 의미가 되고, 예언과 연결되어 사용되면 예언이 성취된 실제적 사건이 된다.¹¹⁾ 이만희는 본인만이 장래에 이루어질 실상을 밝히 드러내는 자임을 주장한다. 본인이 감추어진 비유의 실제적인 뜻을 밝혀 주며, 예언이 이루어진 실제적 사건을 증거하는 자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경은 철저히 봉해져 감추어졌으며,¹²⁾ 심지어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도 본인이 기록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¹³⁾

이만희는 예수께서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 이유를 든다. 첫째, 시편 78편 2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이다(마 13:34-35). 이는 신천지 성경해석의 기초 중에 하나인 장래사로써 예언이 성취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둘째, 천국 비밀을 대적자들에게 감추기 위해서이다(마 13:10-11; 막 4:10-12).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천국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만희는 예수께서 때가 되면 밝히 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16:25), 신천지가 약속대로 그 실상을 알리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⁴⁾

로 ‘개역한글’을 사용한다. 한창덕, 『한 권으로 끝내는 신천지 비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39.

9) 이만희, 『天地創造』, 재판 (과천: 도서출판 신천지, 2012), 213.

10) 박유신, 『신천지 대해부』, 20.

11) 이만희, 『天地創造』, 21, 327-34; 박유신, 『신천지 대해부』, 22. 초기 신천지는 성경 내용의 구분을 역사, 예언, 교훈, 시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과거부터 신천지의 교리는 지속적으로 변개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김건남·김병희, 『神誕: 聖經의 豫言과 그 實相의 證據』 (과천: 도서출판 신천지, 1985), 39.

12) 이만희, 『天地創造』, 22, 27, 283-87.

13) 이만희, 『천국 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성취』 (과천: 도서출판 신천지, 2005), 45.

14) 이만희, 『天地創造』, 284-87;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 사복음서 강해』, 재판 (과천: 도서출판 신천지, 2009), 107-8.

(2) 신천지의 재창조론

이만희는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영계)를 창조하시고 육의 세계(육계)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다고 주장한다(창 1:26-27; 마 6:10).¹⁵⁾ 그는 요한계시록 4장에 묘사된 장면이 영의 세계이며, 이것이 마치 천국의 설계도인 것으로 해석한다.¹⁶⁾ 이러한 이만희의 주장은 자신이 본 환상계시를 통해 순교한 영들과 신천지인들이 신인합일(영육합일)이 되어(계 20:4-6; 고전 14:51-54), 그리스도와 천 년 동안 왕 노릇 한다는 천년성 곧 지상천국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¹⁷⁾

이만희는 창세기 1장이 영적 창조에 대하여 자연계에 빗대어 기록한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문자적 또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그 외에 바다, 새, 땅 등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 또한 분명 영계가 육계보다 먼저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다섯째 날의 물고기는 성도이며(합 1:14; 마 4:18-22; 13:47-50), 새는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라고 한다.¹⁸⁾ 이처럼 이만희는 문맥에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성경구절을 가져와서 알레고리적 해석을 자행한다. 이만희의 주장대로라면 영으로 해석된 ‘새’는 하나님의 창조 다섯째 날에 등장해서는 안 된다. 영은 본인이 분명 육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창조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만희는 육계의 존재가 영들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하며, 영이 육을 들어 역사한다는 것을 절대화시킨다. 이는 자신의 육체에 예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절대화시켜 본인이 결국 재림주와 동일한 존재라고 주장하기 위함이다.¹⁹⁾

이만희는 시대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목자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예수, 이만희 순이라고 주장한다. 아담에서부터 예수까지는 모두 배도로 인하여 실패했고, 이만희가 마지막 목자라는 것이다. 이만희는 예수가 한 인간에 불과한 목자였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예수를 인간이라고 주장한다면 처음부터 의심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²⁰⁾ 이만희가 이 교리를 통해 이루어야 할 가장 큰 목적은 예수를 ‘실패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만희에 의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아담의 배도로 무너지게 되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끊임없이 재창조의 역사를 해오셨다. 택한 선민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버리시

15) 이만희, 『天地創造』, 46.

16) 이만희, 『천국 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 110-16.

17) 이만희, 『天地創造』, 495.

18) 이만희, 『天地創造』, 52-65.

19) 이만희, 『天地創造』, 46; 박유신, 『신천지 대해부』, 48.

20) 박유신, 『신천지 대해부』, 73-74.

고', 새로운 선민을 창조하여 일하셨다는 것이다. 즉,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목자 선택, 나라 창조, 선민과의 언약, 선민의 배도, 선민의 멸망, 새 목자 선택, 배도자와 멸망자의 심판, 구원, 새 나라 창조, 새 언약과 안식순으로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존재한다.²¹⁾ 신천지에게 하나님은 택하였더라도 말씀을 어겼을 때는 가차 없이 떠나시는 분이다. 이러한 논리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택하신 자가 이만희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신천지는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이 시대의 구원자임을 주장한다.

2) 신천지에 대처하는 신학적 해석의 측면에서 한국교회 설교 진단

한국교회가 이단 신천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설교적 대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전에 먼저, 한국교회 강단의 현실을 설교적 측면에서 진단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지면 한계 상 설교 내용에서도 신학적 해석의 측면에 한정하여 진단하려 한다.

(1) 본문 주해에 충실하지 않은 설교

설교자의 우선 되는 임무는 본문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으로 본문에 충실하다는 말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해석학적으로 표현하면, 현대의 상황에 적용하기 전에 저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무시하고 오늘날에 적용만 끌어온다면, 이미 성경적 근거를 상실한 설교이다. 본문을 기록했던 상황과 현대의 상황 사이에는 분명 '시대적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²²⁾ 따라서 설교자의 사명은 '본문에 충실한 설교'(faithful preaching)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교회에 본문에 충실한 설교가 선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설교학 교수 정창균은 본문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설교의 본질에 입각하여 한국교회 설교 현실을 진단하면 근래의 압도적인 경향은 본문에 충실하지 않다고 하였다. 성경을 아예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disuse), 성경을 잘못 사용할 뿐만 아니라(misuse), 성경을 남용(abuse)하여 '설교에서 본문의 이상한 침묵'(the strange silence of the text in preaching)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²³⁾ 본문의 침묵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침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경본문에 충실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은 단순히

21) 이만희, 『天地創造』, 50, 69.

22) 류응렬, "본문을 살아내는 설교자",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플랫폼』 (서울: 아가페출판사, 2021), 274.

23) 정창균, "본문에 충실한 설교의 회복", 『설교한국』 4 (2012): 4; "한국 교회 설교의 본문 이탈 현상과 주제의 편향성"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54 (2012): 70-71.

성경사용 여부에 있지 않고 ‘올바른’ 성경사용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총신대학교 구약학 교수 김지찬은 대부분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설교의 아이디어를 얻는 순간 성경 본문 자체에 대한 연구를 중단하여 결국 설교자들의 석의가 QT 수준의 해석에 머물게 된다고 하였다. 성경 말씀을 너무 쉽게 관찰하고 해석한 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다.²⁴⁾

설교자가 가장 흔히 범하는 본문 해석오류는 ‘의미 주입하기’이다. 이는 본문이 설교자가 말하려는 바를 말하도록 하려는 경향을 지칭한다.²⁵⁾ 물론 성경이 당시의 문화적 상황의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성경 독자들도 현대의 문화적 상황에 제약을 받는다. 때때로 현대인들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 수없이 많은 선입견, 편견, 전제들을 가지고 접근한다.²⁶⁾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 조직신학 교수 Kevin J. Vanhoozer는 모든 독서는 상황화된 읽기로써 진공 상태에서 글을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였다.²⁷⁾ 이는 본문 연구가 충분하지 않을 때 설교자는 언제나 자의적 해석(의미 주입하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문에 충실한 주해단계는 한국교회가 신천지에 설교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첫 단계이자 토대를 마련해준다고 할 수 있다. 정통교회 기성교인이 신천지가 자의적으로 본문을 인용하거나 해석해도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기존에 들었던 설교가 신천지의 해석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게 행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²⁸⁾ 설교자가 궁극적인 목적이 어떠한지 간에 충분한 본문 주해 과정을 생략하거나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을 시도한다면 신자들은 적어도 해석의 방법적인 면에서 정통교회와 신천지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

(2) 인간 중심의 설교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여 들어오시는지를 놓친다면 그의 해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목적을 성취시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행위’ 그 자체이자 ‘하나의 구원 사건’이라 할 수 있다.²⁹⁾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 모두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24) 김지찬, “한국교회 설교의 근본적 문제점: QT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성경해석의 심리화(心理化)-사사화(私事化)와 적용의 정형화(定型化)”, 『성경과 신학』 67 (2013): 272, 284.

25) 정창균, “설교자가 본문해석에서 범하는 의미 주입하기와 유형들”, 『신학정론』 30 (2012): 200-24.

26) R. C. Sproul, *Knowing Scripture*, 길성남 역, 개정2판, 『성경을 아는 지식』 (서울: 좋은씨앗, 2018), 187-88.

27) Kevin Vanhoozer,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Grand Rapids: Zondervan, 1998), 382.

28) 정창균, “위기상황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현실과 교리 설교의 회복”, 351.

29) Sidney Greidanus,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김영철 역, 『성경 해

님의 관여하심을 증거 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활동이 감추어졌을 경우에도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성경의 모든 역사적 기록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³⁰⁾

그러나 한국교회 설교의 대표적인 경향 중에 하나는 하나님보다 성경 속 인물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다. 아세아연합신대학교 설교학 교수 신성욱은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모든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이 인물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이라 하였다.³¹⁾ 총신대학교 실천신학 교수 박태현은 한국교회 개신교 교파들의 설교는 거의 모두 신학적 성격은 뒤로한 채 모범 설교의 틀에 빠져 있다고 해도 지나친 평가는 아니라고 하였다. 여기서 ‘모범 설교’(exemplary preaching)는 본문 안에서 성도들이 따라야 할 내용과 피하여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를 찾아 윤리적 관점에서 적용을 제시하는 형식의 설교를 의미한다.³²⁾ 이러한 설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보다 인간이 부각되도록 하는 형태의 설교라는 것이다.

칼빈신학대학원 설교학 명예교수 Sidney Greidanus는 설교자들이 본문과 현재의 상황을 동일시하는 과정 속에 역사와 계시의 점진적인 움직임이 무시되며, 문학적 문맥이 대부분 경시될 뿐만 아니라 각각 인물들의 활동 및 태도의 독특성이 간과되는 문제를 지적한다. 그는 점진적 계시가 시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현대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사이에 단순히 일종의 역사적인 등호(equation mark)를 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 하였다. 과거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가 반드시 현대인들을 위한 최종적인 계시는 아니라는 것이다.³³⁾

물론 윤리적인 권고를 결코 생략해서는 안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성경신학과 설교학 교수 Edmund P. Clowney 역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인간의 윤리 반응(모범)을 촉구하는 것은 은혜 언약이 항상 윤리 반응을 요구하듯이 결코 인

석과 성경적 설교』(서울: 여수론, 2012), 21-34, 202.

30) Gerhard von Rad, *God at work in Israel*, trans. John H. Marks (Nashville: Abingdon, 1980), 142-47; Hans Walter Wolff, *The Old Testament: A Guide to Its writings*, trans. Keith Crim (Philadelphia: Fortress, 1973), 7-9; 김창훈, “‘구속사적 설교(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의 평가”, 『복음과 실천신학』 15 (2008): 141-2, 147-8.

31) 신성욱, “그리스도가 빠진 인물 중심의 모범적 삼대지 설교의 문제성과 그 대안으로서의 원포인트의 내려티브 강해 설교: 누가복음 19장 1-10절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53 (2019): 64.

32) 박태현, “종교개혁 500주년과 한국교회 설교개혁”, 『성경과 신학』 85 (2018): 86; 문상기, “구속사적 설교 이해: 본문의 해석과 적용 문제”, 『복음과 실천』 46 (2010): 297.

33) Greidanus, 『성경 해석과 성경적 설교』, 233, 305-18.

위적이거나 불합리하게 나타날 수 없다고 하였다.³⁴⁾ 그러나 설교가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가 아닌 단지 윤리나 덕성 함양을 위한 훈계로 나아간다면 성경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기계시라는 점을 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신적인 요소를 상실한 채 지나치게 ‘영웅전식 해석’이 되어버릴 수 있다.³⁵⁾

따라서 성경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인물들을 따로 떼어내어 독립적인 인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언제나 더 큰 이야기로써 하나님 중심적인 초점을 갖고 있는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이다.³⁶⁾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며 인물들은 하나님의 특정한 의도와 관련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과 인간의 행동은 각 요소의 양자택일이나 비중의 문제가 아닌 ‘우선순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천지에 대처하는 측면에서 인간중심적인 접근의 위험성은 무엇일까? 윤리적 권고에만 익숙해진 기성교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맥락 안에서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신천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단순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기에 예수를 진정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여기서 새 언약을 지키는 것은 정통교회가 이해하는 새 언약이 아닌 신천지가 주장하는 비유퓌이를 알아야 한다는 주장과 연결되는 것이다.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이룰 때 새 언약을 지키므로(신천지의 비유퓌이를 깨달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³⁷⁾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신천지가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또 다른 구원의 조건을 보다 쉽게 용인할 위험성이 있다.

2. 신천지에 대처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교리)적 해석의 핵심 단계

본문 주해에 충실하지 않은 현상은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설교철학을 지닌 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설교자가 본문이 그리스도를 말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³⁸⁾ 그리스도를 설교하려는 정당한 철학을 지녔다 해

34) Edmund P. Clowney, *Preaching and Biblical Theology*, 류근상 역, 『설교와 성경신학』 (서울: 크리스찬출판사, 2003), 76.

35) 이우제, “Sidney Greidanus의 설교 연구: 현대 설교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27 (2013): 347.

36) Greidanus, 『성경 해석과 성경적 설교』, 227; 이승진, 『설교를 위한 성경해석』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163-66.

37) 박태수, “복음방 교육에 나타난 신천지 교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조직신학연구』 21 (2014): 175.

38) Greidanus, 『성경 해석과 성경적 설교』, 228.

도³⁹⁾ 본문이 말하지 않는 바를 말하려 한다면 이 또한 ‘본문 주해에 충실하지 않은 설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⁴⁰⁾

그렇다면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주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1세기 C. S. 루이스로 평가받는 Timothy Keller는 본문을 설교하지 않은 채 급하게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반대로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은 채 본문만 설교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⁴¹⁾ 이는 먼저, 기록된 당시의 상황에 기초한 본문 자체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기초로 그리스도와 의 연관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⁴²⁾ 이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⁴³⁾

설교자는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구속사를 강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백성과 교제하신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⁴⁴⁾ 이는 그리스도 중심의 기초가 일차적으로 구속사 자체가 아닌 하나님 중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문에 충실한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은 모든 본문이 더 큰 이야기(구속사)의 한 부분임을 유념하여 그 본문을 해석하는 것에 달려 있다.⁴⁵⁾ 설교자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것과 성경의 모든 구절과 내용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다르다. 이를테면, 과거와 현대의 상황에 따른 연관성에 기초한 적용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경우와 모든 본문의 단어와 구절, 이야기 자체를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경우는 다른 것이다. 본문을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으로 해석하는 접근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한국교회가 이단 신천지에 설교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설교자는 신천지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분명한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본문의 본래 의미에 충실하면서도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교리)적 해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설교적 관점에서 신천지의 미혹을 예방하기 위해 선포되어야 할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적 해석에 기초한 교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리 설교’(Christ-centered doctrinal preaching)이다. 연구자는 ‘그리스도 중심의 해

39) 김진규, “구약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방법론 연구”, 『성경과 신학』 82 (2017): 65.

40) Sidney Greidanus,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김진섭·류호영·류호준 역, 개정판,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하나의 현대적 해석학 방법론』 (서울: 이레서원, 2019), 74-75.

41) Timothy Keller, *Preaching*, 채경락 역, 『팀 켈러의 설교』 (서울: 두란노, 2016), 93.

42) Tony Merida, *Faithful Preaching*, 김대혁 역, 『설교다운 설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98.

43) Vern S. Poythress, *Theophany*, 김귀탁 역, 『신현』 (서울: 부흥과개혁사, 2020), 17-20.

44) Sidney Greidanus, *Sola Scriptura*, 권수경 역, 개정판,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역사적 본문에 대한 설교 원리들과 문제점』 (서울: SFC, 2006), 23.

45) Greidanus, 『성경 해석과 성경적 설교』, 416-17.

석'(Christ-centered interpretation)이 범할 수 있는 다양한 해석학적 오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직접적인 방식(본문의 본래 의미에서 드러내는 방식)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본문의 신학적 해석에 기초한 적용에서 드러내는 방식)을 포함하는 '그리스도로 이끄는 해석'(interpretation leading to Christ)을 제안한다.⁴⁶⁾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본문의 본래 의미(주해)뿐만 아니라 신학(교리)적 해석 및 적용에서 모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신천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리 설교를 위한 신학적 해석의 측면에서 핵심 단계를 제시하려 한다.

1) 그리스도 중심의 주해화 단계

(1) 그리스도 중심의 관찰

설교자들이 '자기중심적 읽기'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처방 중에 하나는 '관찰'이다.⁴⁷⁾ 이는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서 최대한 많은 단서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성경 본문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자료를 제공하지만, 같은 본문 안에서 읽어내는 정도에 따라 의미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⁴⁸⁾ 본문 이해를 위한 관찰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맥을 고려하여 단락 중심으로 읽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본문이 속한 책 전체를 읽어서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본 후, 본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문맥을 중점적으로 읽는다.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가까운 문맥부터 시작하여 점차 먼 문맥을 고려해야 한다. 대체로 (1) 본문 앞뒤의 인접 문맥, (2) 단락, (3) 본문이 속한 장과 책, (4) 구약 또는 신약성경 (5) 성경 전체 순으로 살펴보아야 한다.⁴⁹⁾ 또한 육하원칙에 기초한 적절한 질문을 던져야 한

46) 연구자가 제안하는 그리스도로 이끄는 해석은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에 대한 다양한 견해 중에 연구자의 해석학적 관점에 기초한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설교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Abraham Kuruvilla, *A Vision for Preaching*, 광철호·김석근 역, 수정판, 『설교의 비전』 (이천: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18), 143-162; Dale Ralph Davis, *The Word Became Fresh: How to Preaching from Old Testament Narrative Texts* (Fearn, Scotland: Mentor, 2006), 134-35; Graeme Goldsworthy, *Preaching the Whole Bible as Christian Scripture*, 김재영 역, 『성경신학적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2), 187-91.

47) Howard G. Hendricks and William D. Hendricks, *Living by the Book Workbook*, 정현 역, 개정판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연구』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12), 91.

48) 정성국, 『묵상과 해석』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8), 48.

49) Daniel M. Doriani, *Getting the Message: A Plan for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Bible*, 정옥배 역, 『해석, 성경과 삶의 의미를 찾다』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다.⁵⁰⁾

단락 안에 있는 문장들을 차례로 살필 때는 먼저 각 문장의 주어와 (주)동사 및 목적어를 찾아야 한다. 주어와 동사, 목적어에 기초한 문장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면 아무리 복잡한 문장도 저자가 말하려는 핵심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다.⁵¹⁾ 특히 주동사와 분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본문의 핵심 아이디어를 전혀 다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에, 영어 성경 더 나아가 원어 성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⁵²⁾ 또한 접속사를 통해 저자의 논지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와 ‘그러므로’와 같은 결론을 이끄는 접속사가 중요하다. ‘그러나’는 앞에서 언급된 내용과 대조를 이루거나 반대되는 생각을 나타낸다. 대체로 이 접속사 앞에는 저자가 부정하거나 반대하려는 생각 또는 사실이 나오고, 뒤에는 저자 자신의 생각이 이어진다. ‘그러므로’와 같은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에는 저자의 중심 사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는 문장, 목적과 이유를 밝히는 문장, 특정한 사실이나 주장을 제시하는 문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⁵³⁾

둘째, 강조나 반복된 부분에 주목하며 읽는 것이다. 책의 많은 부분을 한 주제나 사건에 할애함으로 강조할 수 있다.⁵⁴⁾ 또한 성경의 저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강조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말하려는 바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요 20:30-31; 잠 1:2-6). 때로는 강조하려는 것을 특별한 위치(순서)에 놓기도 한다. 예를 들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눅 8:40-42, 49-56) 사이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눅 8:43-48)가 삽입된 것은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함이다.⁵⁵⁾ 이뿐만 아니라 ‘핵심단어’의 반복을 통해 강조하기도 한다.⁵⁶⁾

셋째 암시하거나 침묵하는 부분을 주의해서 읽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내러티브에서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아브람이 하란에서 지체한 이유에 대하여

2011), 52-56.

50) Hendricks and Hendricks,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연구』, 75-87, 121-28.

51) 길성남,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14), 50.

52) 신성욱, 『설교의 삼중주』 (용인: 킹덤박스, 2020), 101-4.

53) J. Scott Duvall and J. Daniel Hayes, *Grasping God's Word*, 류호영 역, 『성경해석』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37-63; 김상훈, 『해석 매뉴얼: 성경해석법의 이론과 실제』, 개정판 (서울: 그리스심, 2006), 51-100.

54) Arthur Walkington Pink, *Gleanings in Genesis*, 정충하 역, 『아더핑크 창세기 강해』 (파주: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5), 148.

55) David E. Garland, *Zondervan Exegetical Commentary Series on the New Testament: Luke*, 정옥배 역, 『강해로 푸는 누가복음』, 『존더반 신약주석』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18), 406-7; Greidanus, 『성경 해석과 성경적 설교』, 130-37.

56) Gordon D. Fee and Douglas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오광만·박대영 역, 개정4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16), 126.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람이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창 12:5)라는 표현을 통해 아브람이 하란에서 지체한 이유는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유혹에 근거한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침묵에 대한 예는, 북 이스라엘과 시리아(아람)의 연합군으로부터 침공을 당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라고 하시면서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신다(사 7:8-9). 다음으로 등장해야 할 나라는 유다인데 생략된 것이다. 비록 침묵하고 있지만,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머리는 여호와로 이를 “믿으면 굳게 서리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즉 유다의 진정한 왕은 아하스가 아닌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것이다.⁵⁷⁾

넷째, 서로 비슷하거나 상반된 부분에 주목하여 읽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떠나려 했던 것과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장면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을 가도록 허용하시지만, 이삭은 막으신다(창 26:2).⁵⁸⁾ 이는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한 의미를 묵상해보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다섯째,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읽기의 모든 규칙을 적용하며, 무엇보다 성경에서 하나님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주목하게 하여 신천지의 ‘이만희 중심적’ 해석에 미혹되지 않도록 해주는 핵심적인 성경읽기라 할 수 있다. 먼저, 설교자는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직접 표현되지 않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여지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제하며 본문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행간에 생략된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야 한다.⁵⁹⁾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책으로 시종일관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증언한다. 성경 이야기에서 때때로 사람들이 중심 무대를 차지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역할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있다.⁶⁰⁾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읽기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려는 그리

57) 송병현, 『이사야 I』, 『엑스포지멘터리』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269-314.

58) Gordon J. Wenham,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2: Genesis*, 윤상문·황수철 역, 『창세기(하)』, 『WBC 성경주석』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1), 355-58; Kenneth O. Gangel and Stephen J. Bramer, *HOLMAN Old Testament Commentary: Genesis*, 김진선 역, 『창세기』, 『Main Idea로 푸는』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9), 299-300.

59) Fee and Stuart,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28-29, 132.

60) Greidanus,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 410.

스도 중심의 읽기는 구약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의 완성에 비추어 읽는 것이다. 단, 구약성경의 모든 구절에서 예수를 찾아내려는 강박관념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본문이 궁극적으로 예수를 향해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⁶¹⁾

예를 들어, 느헤미야서 5장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과정에서 내적 방해요소인 내부 갈등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다루고 있다. 성벽 재건은 해야 했고, 한편으로는 외부의 방해세력에도 대항해왔다. 그 과정 속에 지독한 ‘흉년’이 들게 되며, 내부의 갈등과 원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도록 만든 구조에 대해 분노하며 행정조치를 통해 백성들의 원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준다. 이 대목은 분명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⁶²⁾ 그러나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부정적으로 보이며, 그에 반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위대해 보이지만 보다 더 세밀하게 관찰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한의 상황에 놓여 원망까지 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흉년’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⁶³⁾ 창세기 41장에서 바로 왕이 꿈을 꿔서 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게 된다.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풍년과 흉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것임을 알게 해준다(32절).⁶⁴⁾

그렇다면 느헤미야 5장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기 위한 핵심 단서는 바로 ‘흉년’이라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주신 ‘흉년’으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분명 표면적으로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대목이지만,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13장을 보면, 위대한 지도자인 느헤미야도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이 땅에 궁극적인 지도자로서 예수께서 오셔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⁶⁵⁾

61) 길성남,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156, 160.

62) H. G. M. Williamson, *World Biblical Commentary, Volume 16: Ezra, Nehemiah*, 조호진 역, 『에스라·느헤미야』, 『WBC 성경주석』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8), 457-67; 임경철, “참 지도자 느헤미야의 리더십 원리와 교훈들”; 장미자, “느헤미야 4~5장: 느헤미야의 언약적 충성”, 『에스라 느헤미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아카데미』, 2009), 173-75, 260-63; Knute Larson and Kathy Dahlen, *HOLMAN Old Testament Commentary: Ezra, Nehemiah, Esther*, 김진석 역, 『에스라·느헤미야·에스더』, 『Main Idea로 푸는』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8), 259-63.

63) Williamson, 『에스라·느헤미야』, 455; 장미자, “느헤미야 4~5장,” 259-60.

64) Wenham, 『창세기(하)』, 687-88; Gangel and Bramer, 『창세기』, 455.

65) 민경진, “개혁 교과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에스라 느헤미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91-93; 바이블프로젝트, “에스라-느헤미야 개요” [온라인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IxHJN4cOl-c>, 2021년 6월 30일 접속.

(2)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아직 해석 작업이 끝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문이 그리스도 또는 그의 메시아 사역의 측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설교자의 임무는 본문에 나타나 있는 구속적 활동을 설명하면 된다.⁶⁶⁾

예를 들어, 이사야의 예언이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처녀의 몸인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것으로 성취되었다(사 7:14; 마 1:23). 그러나 그 본문이 궁극적으로 예수에 대한 예언이라도 일차적으로 그 당시에 어떠한 의미였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설교자가 이 작업을 생략하거나 과도하게 단순화시키면, 마치 구약시대에는 봉함된 상태여서 의미를 알 수 없다가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신천지의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다. 실제로 신천지도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을 연결하여 구약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종적인 답이 맞아도 기성교인들이 본문의 문맥과 그 당시의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 설교자의 해석에 익숙해지면 신천지와 같은 해석을 쉽게 용인할 위험이 있다.⁶⁷⁾

또한 예수에 대한 예언을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구약의 성취는 예수, 신약의 성취는 이만희라는 도식을 가지고 해석하는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도록 구약에서 예언된 본문이 예수의 초림 때 완전히 성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다. 구약의 예언이 구약 내에서 성취될 수도 있지만, 예수의 초림에 성취되기도 하며, 더 나아가 예수의 재림 때 완전히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⁶⁸⁾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구약성경의 모형(예표)들 안에 분명히 나타나기도 한다. 신약성경 저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예시하는 인물이나 특징을 구체적으로 인용한 부분(아담, 다윗, 멜기세덱, 유월절, 성전 등)에서 설교자는 모형론적 강해를 안심하고 제시할 수 있다.⁶⁹⁾ 셋째, 그리스도에

66) Chapell,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409.

67) 이만희,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 34-35.

68) David L. Baker, *Two Testaments, One Bible*, 임요한 역, 『구약과 신약의 관계』(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265-66; Greidanus,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308-9.

69) Gordon P. Hugenberger, "Introductory Notes on Typology", *The Right Doctrine from the Wrong Text Essays on the Use of the Old Testament in New*, ed. G. K. Beale (Grand Rapids: Baker, 1994), 337-41; Edmund Clowney, *The Unfolding Mystery: Discovering Christ in the Old Testament*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 Reformed, 1988), 14-16.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구절이다. 이러한 경우는 문맥에 의지하여 메시지의 구속적 초점을 전개해야 한다. 설교자는 모든 본문이 예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고 주장하기보다 때가 찰 때에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들이나 필요성을 본문이 어떻게 반영하는지 드러내야 한다. 그로인해 하나님의 ‘점진적인’ 구속 계획에 따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⁷⁰⁾

그렇다면 신천지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성경을 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라는 잠금 장치로 일정 대상에게는 감추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 동일하게 계시하시되, 점진적으로 계시하셨을 뿐이다.⁷¹⁾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이 원리를 신천지와 같이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원리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두 본문이 같은 교훈과 사상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지 같은 단어나 표현이 나온다는 피상적인 유사성에 근거하여 이 원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저자의 의도, 본문의 문맥과 배경 등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종합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⁷²⁾

2)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교리)화 단계

(1)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적 위치 파악

언약은 하나님의 계시에 필수적인 기초가 된다. 하나님은 구속사에서 여러 언약을 통해 그의 말씀과 계획을 계시해오셨다.⁷³⁾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점진적’으로 계시해 오셨음을 보여주어 계시의 ‘보편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신천지는 계시가 일정기간 봉해져 있었다는 계시의 ‘배타성’을 주장한다.⁷⁴⁾ 시대 구분의 경계가 신천지와 같이 필요 이상으로 분명해지면 성경의 통일성이 간과되어 결국 언약의 연속성이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는 신천지가 주장하듯이 새로운 계시가 옛 것을 교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 하나

70) Geerhardus Vos, *Biblical Theology*, 원광연 역, 『성경신학』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14-16.

71) 이만희, 『성도와 천국』, 25-26; 박유신, 『신천지 대해부』, 39.

72) 길성남,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428-29; Gregory K. Beale, *Handbook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이용중 역, 『신약의 구약 사용 핸드북』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77-79.

73) Stephen J. Wellum, *Kingdom through Covenant*, “‘언약을 통한 하나님 나라’”, 김귀탁 역, 『언약과 하나님 나라』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849-50; R. C. Sproul, *The Promises of God*, 김태곤 역, 『언약: 철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11.

74) 이만희, 『天地創造』, 26-28.

님의 계시에 내용이 보강되거나 추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점진적 계시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시대가 지날수록 이전보다 계시를 더 많이 알게 되었음을 의미한다.⁷⁵⁾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음을 거듭 밝히셨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내에서 세워진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구속 언약(the covenant of redemption)’이라 부른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관하여 삼위 하나님 간에 영원부터 존재해 온 협약으로써 여기에는 인간을 향한 ‘은혜’에 기초한 ‘무조건적’ 요소가 내포된다.⁷⁶⁾ 반면에, 신천지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시는 언약만을 제시한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목자(구원자)를 택하시고 언약하셨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구속 언약’이 없다보니 언약이 ‘조건적’ 약속에만 기초한다.⁷⁷⁾ 물론 성경에서 제시되는 언약에는 조건적 요소와 무조건적 요소가 공존한다. 그러나 ‘구속 언약’은 언약의 지속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에 근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를 위해 조치를 취하실 것이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⁷⁸⁾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대별로 빛의 역할(구원자)을 할 목자를 세우신 다음에 그를 중심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주장하는 신천지의 접근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왜곡하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속은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며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신천지는 하나님이 구속에 중심이 될 ‘자격이 있다’고 여겨진 사람들을 택하셨는데, 기대와는 달리 시대별로 그들이 계속하여 배도함으로써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어 새로운 목자를 택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⁷⁹⁾ 이는 인간의 타락 전에 맺어진 ‘구속 언약’을 간과한 해석이며,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불완전하게 묘사함으로써 그분의 속성(자존성, 독립성, 전지전능함 등)을 왜곡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⁸⁰⁾

75) Goldsworthy, 『성경신학적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129-32.

76) Sproul, 『언약: 철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28-29; Michael Horton, *God of Promise: Introducing Covenant Theology* (Grand Rapids, MI: Baker, 2006), 81-82.

77) 이만희, 『天地創造』, 120-42.

78) Thomas R. Schreiner, *Covenant and God's purpose for the World*, 임요한 역 『언약으로 성경 읽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85-89.

79) 이만희, 『天地創造』, 72.

80) 성경은 하나님께서 존재하기 위해서, 혹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피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는 스스로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의 실존이나 본성을 위해 피조물의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독립성(independence)과 자존성(aseity)이라고 한다(행 17:24-25).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노진준 역, 재판, 『웨인 그루데ムの 조직신학(상)』 (서울:

언약이 무조건적이라면, 언약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순종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충족되도록 조치를 취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어떤 이가 믿고 순종하도록 보장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다(엡 2:8-9). 그러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순종은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않다. 오직 무죄하신 예수만이 영원하고도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의 유일한 근거가 되신다. 언약의 조건적 요소와 무조건적 요소 사이의 긴장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해결된다.⁸¹⁾

새 언약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닌 이전 언약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⁸²⁾ 새 언약의 요소들에는 분명 이전 언약들과 대조되는 새로운 것들도 있지만, 그 자체를 넘어 그 속에 담긴 약속들이 실현될 미래를 내다본다고 할 수 있다. 그 모든 약속은 새 언약 아래서 성취된다. 낙스 신학대학교 등 여러 주요 신학교에서 신학과 변증학 교수였던 R. C. Sproul은 마지막 언약이어서 새 언약이라고 칭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것은 다른 모든 언약이 지향하는 ‘완료’의 언약이자 ‘완성’의 언약이라고 하였다.⁸³⁾

따라서 설교자는 언약의 중보자들에 관한 본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언약에 기초하여 구속사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⁸⁴⁾ 또한 기성교인들에게 구약에 언급된 모든 언약이 그들이 속해 있는 새 언약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하고, 새 언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더 이상 언약의 중보자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전할 필요가 있다.

(2)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한 인간의 반응

은성출판사, 2009), 219-21.

81) Sproul, 『언약: 철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131, 231-33; Schreiner, 『언약으로 성경 읽기』, 86-89.

82) Shreiner, 『언약으로 성경 읽기』, 189-97; Wellum, “‘언약을 통한 하나님 나라’”, 922.

83) Sproul, 『언약: 철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194-95.

84) 커버넌트신학교 신약학 교수 Daniel M. Doriani는 언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사람을 분류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은 (1) 타락 이전, (2) 타락했으나 구속받지 못한, (3) 타락했고, 구속받은, (4) 영화된 상태라고 하였다. 또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혹은 그리스도와의 언약 하에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물론 이보다 더 상세하게 탐구할 수도 있다. 언약의 개념을 이용하는 것은 역사적 위치를 알기 위해 중요하지만, 신학적 위치를 아는 데는 더 유용하다. Daniel M. Doriani, *Putting the Truth to Work: The Theory and Practice of Biblical Application*, 정옥배 역, 『적용, 성경과 삶의 통합을 말하다』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18.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의지(책임)를 소홀히 하면 방관적인宿命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인간의 잠재력과 책임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놓쳐 버리는 것은 피조물을 높이고 창조자를 낮추는 것이다. 주권은 하나님 전체의 특징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성품을 주권적으로 드러내시고 능력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 사용하신다.⁸⁵⁾ 그렇다면 인간의 의지란 무엇인가? 의지는 모든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그러나 의지를 지배하는 주체가 존재한다. 성경은 마음이 인간을 지배하는 중심이라고 가르친다(잠 4:23). 예수께서도 죄악된 행위의 근원을 추적하시며, 그 근원은 의지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선언하신다(막 7:21; 마 15:8). 즉, ‘주권’이라는 말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다. 왜 죄인이 죄악 되고 방종한 삶을 선택하는가? 죄인의 마음이 죄로 가득하여 이런 삶을 선호하기 때문이다.⁸⁶⁾

하나님의 주권과 그에 따른 인간의 반응을 포함한 개념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함에 있어 먼저, 하나님의 뜻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논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뜻’의 의미가 언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will)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대인이 흔히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은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낯선 것이었다. 히브리어에는 뜻에 해당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에서 ‘뜻’으로 자주 번역되는 히브리어인 *chephets*와 *ratson*은 ‘기뻐함, 바라는 것, 좋아함’ 등을 뜻한다(삼상 15:22; 렘 22:28; 잠 10:32; 14:32 등).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계획이나 의지보다는 그분이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사랑하시는 그 무엇이다.⁸⁷⁾ 따라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도 기뻐하기 원하시는 ‘인격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영국의 신학자 Leslie D. Weatherhead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 뜻(intentional will), 상황적 뜻(circumstantial will), 궁극적 뜻(ultimate will)으로 구분한다. 의도적 뜻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바이다. 상황적 뜻은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궁극적 뜻은 하나님의 뜻의 궁극적인 실현이다.

85) 20세기 후반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기독교 작가로 알려진 Arthur W. Pink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분의 능력, 자비, 사랑, 은혜에서 드러나는 성경의 예시를 들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Arthur W. Pink, *The Sovereignty of God*, 전의우 역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 (서울: 요단출판사, 2011), 24-36, 360; 김진혁, 『질문하는 신학』 (서울: 복있는 사람, 2019), 187; 김용복, 『회중주체적 조직신학』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17), 195.

86) Pink,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 203-8; Chapell,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301.

87) 김진혁, 『질문하는 신학』, 202-3.

Weatherhead는 고통스러운 상황마저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려는 왜곡된 욕망과 습관을 경계하였다. 물론 성경은 인간의 잘못에 대한 교정책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그에 의하면, 고통스러운 상황은 하나님의 궁극적 뜻의 실현을 위해 특별한 경우 한정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적 뜻’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하나님의 의도적 뜻은 무산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궁극적 뜻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⁸⁸⁾

이에 대한 이해는 신천지가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하는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해주는데 유익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신천지가 주장하는 재창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본래 의도했던 뜻이 인간의 반복된 타락으로 인하여 무산되어 펼쳐지는 ‘상황적 뜻’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신천지는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궁극적 뜻은 이만희를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신천지, 新天地)을 창조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개념적 구분을 기준으로 신천지의 주장을 분석한다면, 하나님이 목자를 택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만드시려는 것이 의도적 뜻이 되며, 시대별로 하나님이 택한 목자들과 언약하지만 그들이 배도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새 목자를 택하시는 과정이 상황적 뜻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들과 육체들이 하나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되는 것이다. 신천지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결국 최종적으로 이만희를 이 시대의 목자로 택하셔서 그분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⁸⁹⁾

그러나 여기에서 세상은 하나님께 의존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 행위 이전에 자기 결정으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이다.⁹⁰⁾ 신천지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과 궁극적 뜻인 ‘신인합일’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목적 자체부터 왜곡시킨다고 할 수 있다.⁹¹⁾ 그렇다면 신천지가 주장하는 상황적 뜻의 핵심적인 오류는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이 예수 이전의 인물들과 언약했다는 것을 상황적 뜻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하는 것은 구속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확증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⁹²⁾ 둘째, 하나님이 시대별로 언약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새

88) Leslie D. Weatherhead, *The Will of God*, 이천수 역, 『하나님의 뜻』 (서울: 요단출판사, 1976), 11-63.

89) 이만희, 『天地創造』, 46, 50, 69-182.

90) Matthew Barrett, *40 Questions About Salvation*, 김태곤 역, 『구원에 관한 40가지 질문』 (서울: 아가페출판사, 2020), 92; Wellum, “‘언약을 통한 하나님 나라’”, 935-36.

91) 이만희, 『天地創造』, 492-98.

92) Sproul, 『언약: 철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28-29; Horton, *God of Promise*, 81-82.

언약(예수 그리스도)으로 통합되고 완성되는 것인데 신천지는 각각의 언약들이 시대별로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 이후에 또 한 명의 중보자를 주장하는 것이다.⁹³⁾

따라서 설교자는 기성교인들이 신천지에 미혹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 주권에 기초한 인간의 반응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견지해야 할 관점은 하나님은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의 행동까지도 다스리신다는 사실이다.⁹⁴⁾ 설교자는 본문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경인물들은 구체적인 적용을 제시해주기 위한 비교대상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⁹⁵⁾ 그러나 이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인간의 반응을 초월하여 궁극적으로 그분의 주권 안에서 전개된다는 것이다.⁹⁶⁾ 이러한 접근은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를 왜곡하는 신천지의 주장에 미혹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Ⅲ. 나가는 글

사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면서 코로나 방역이나 치료법보다 애초에 코로나에, 심지어 변이된 코로나에도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백신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교회에 신천지와 그 이후의 아류 집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영적 백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교회가 준비되지 못하면 기성교인이 신천지나 신천지 교리와 맥을 같이 하는 또 다른 이단에 빠질 위험을 막지 못할 것이다.⁹⁷⁾ 모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단 전문가가 될 필요는

93) 이만희, 『天地創造』, 120-82.

94)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역했어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Pink,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 62-63.

95) 신성욱, 『설교의 삼중주』, 61-62.

96) Doriani, 『적용, 성경과 삶의 통합을 말하다』, 121.

97) 대부분의 한국이단들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교리를 개발하기보다 자신이 속해 있던 다른 이단들의 교리를 개조, 조합 및 도용한다. 신천지도 예외 없이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이단적 교리의 영향을 받아 계승한 것이다. 특히 이만희는 박태선의 전도관, 유재열의 장막 성전 등에서 교리를 배우고 적절히 조합 및 도용하여 자신만의 신천지 교리로 발전시킨 것이다. 진용식, “이만희 신격화 교리”, 『신천지 포교전략과 이만희 신격화 교리』 (서울: 도서출판 한국교회문화사, 2007), 101-7; 탁지일, “이단 교주들의 공통점: 성공하는 교주들의 7가지 습관”, 『기독교사상』 706 (2017): 38-39.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단 대처는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단 신천지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 프레임이다. 따라서 신천지에 대처하기 위해 예방교육의 차원으로 교회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적 해석’에 기초한 교리 설교가 정기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이해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기독교 교리를 세우는데 있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구약성경은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예수께서 직접 그에 대한 증언을 하셨다(요 5:39; 눅 24:44-45).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길성남.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14.
- 김건남·김병희. 『神誕: 聖經의 豫言과 그 實相의 證據』. 과천: 도서출판 신천지, 1985.
- 김대혁. “본문성이 드러나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제안”. 『복음과 실천신학』 42 (2017): 9-47.
- 김병하 외 15인. 『에스라 느헤미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HOW 주석』. 목회와신학 편.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 김상훈. 『해석 매뉴얼: 성경해석법의 이론과 실제』. 개정판. 서울: 그리스, 2006.
- 김용복. 『회중주체적 조직신학』.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17.
- 김지찬. “한국교회 설교의 근본적 문제점: QT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성경해석의 심리화(心理化)-사사화(私事化)와 적용의 정형화(定型化)”. 『성경과 신학』 67 (2013): 261-90.
- 김진규. “구약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방법론 연구”. 『성경과 신학』 82 (2017): 63-92.
- 김진혁. 『질문하는 신학』. 서울: 복있는 사람, 2019.
- 김창훈. “‘구속사적 설교(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의 평가”. 『복음과 실천신학』 15 (2008): 132-52.
- _____. 『하나님 중심적 설교』. 서울: 호밀리아, 2016.
- 문상기. “구속사적 설교 이해: 본문의 해석과 적용 문제”. 『복음과 실천』 46 (2010): 293-318.

- 바이블프로젝트, “에스라-느헤미야 개요”. [온라인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IxHJN4cOl-c>. 2021년 6월 30일 접속.
- 박유신. 『신천지 대해부』. 수원: 기독교포털뉴스, 2020.
- 박태수. “복음방 교육에 나타난 신천지 교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조직신학연구』 21 (2014): 169-96.
- 박태현. “종교개혁 500주년과 한국교회 설교개혁”. 『성경과 신학』 85 (2018): 71-99.
- 송병현. 『이사야 I』. 『엑스포지멘터리』.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 신성욱. “그리스도가 빠진 인물 중심의 모범적 삼대지 설교의 문제성과 그 대안으로서의 원 포인트의 내러티브 강해 설교: 누가복음 19장 1-10절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53 (2019): 63-101.
- _____. 『설교의 삼중주』. 용인: 킹덤북스, 2020.
-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개정판. 서울: 요단출판사, 2017.
- 이만희. 『성도와 천국』. 안양: 도서출판 신천지, 1995.
- _____.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 사복음서 강해』. 재판. 과천: 도서출판 신천지, 2009.
- _____. 『천국 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성취』. 과천: 도서출판 신천지, 2005.
- _____. 『天地創造』, 재판. 과천: 도서출판 신천지, 2012.
- 이승진. “목회 사역과 교리 설교”.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41 (2008): 27-47.
- _____. 『설교를 위한 성경해석』.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 이우제. “Sidney Greidanus의 설교 연구: 현대 설교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27 (2013): 335-67.
- 임도균 외 4인.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플랫폼』. 서울: 아가페출판사, 2021.
- 정성국. 『묵상과 해석』.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8.
- 정윤석. 『신천지, 왜 종교사기인가』. 수원: 기독교포털뉴스, 2019.
- 정윤석 외 2인. 『신천지 포교전략과 이만희 신격화 교리』. 서울: 도서출판 한국교회문화사, 2007.
-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2002.
- _____. “본문에 충실한 설교의 회복”. 『설교한국』 4 (2012): 3-6.
- _____. “설교자가 본문해석에서 범하는 의미 주입하기와 유형들”. 『신학정론』 30 (2012): 199-224.

- _____. “위기상황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현실과 교리 설교의 회복”. 『신학정론』 32 (2014): 346-65.
- _____. “한국 교회 설교의 본문 이탈 현상과 주제의 편향성”.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54 (2012): 67-83.
- 최병규. 『이단 진단과 대응』. 서울: Grace은혜출판사, 2004.
- 탁지일. “이단 교주들의 공통점: 성공하는 교주들의 7가지 습관”. 『기독교사상』 706 (2017): 38-47.
- _____. 『이단이 알고 싶다』. 파주: 넥서스, 2020.
- 한창덕. 『한 권으로 끝내는 신천지 비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 Baker, David L. *Two Testaments, One Bible*. 임요한 역. 『구약과 신약의 관계』.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 Barrett, Matthew. *40 Questions About Salvation*. 김태곤 역. 『구원에 관한 40가지 질문』. 서울: 아가페출판사, 2020.
- Beale, G. K. *Handbook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이용중 역. 『신약의 구약 사용 핸드북』.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 _____.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김귀탁 역. 『신약성경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 Beale, G. K., ed. *The Right Doctrine from the Wrong Text Essays on the Use of the Old Testament in New*. Grand Rapids: Baker, 1994.
- Chapell, Bryan. *Christ-centered preaching*. 임성욱 역. 개정증보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서울: 은성, 2016.
- Clowney, Edmund P. *Preaching and Biblical Theology*. 류근상 역. 『설교와 성경신학』. 서울: 크리스찬출판사, 2003.
- _____. *The Unfolding Mystery: Discovering Christ in the Old Testament*.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 Reformed, 1988.
- Davis, Dale Ralph. *The Word Became Fresh: How to Preaching from Old Testament Narrative Texts*. Fearn, Scotland: Menter, 2006.
- Doriani, Daniel M. *Getting the Message: A Plan for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Bible*. 정옥배 역. 『해석, 성경과 삶의 의미를 찾다』.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1.
- _____. *Putting the Truth to Work: The Theory and Practice of Biblical Application*. 정옥배 역. 『적용, 성경과 삶의 통합을 말하다』.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 회, 2009.
- Duvall, J. Scott and J. Daniel Hayes. *Grasping God's Word*. 류호영 역. 『성경해석』.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 Fee, Gordon D. and Douglas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오광만·박대영 역. 개정4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16.
- Gangel, Kenneth O. and Stephen J. Bramer. *HOLMAN Old Testament Commentary: Genesis*. 김진선 역. 『창세기』. 『Main Idea로 푸는』.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9.
- Garland, David E. *Zondervan Exegetical Commentary Series on the New Testament: Luke*. 정옥배 역. 『강해로 푸는 누가복음』. 『존더반 신약주석』.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18.
- Gentry, Peter J. and Stephen J. Wellum. *Kingdom through Covenant*. 김귀탁 역. 『언약과 하나님 나라』.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 Goldsworthy, Graeme. *Preaching the Whole Bible as Christian Scripture*. 김재영 역. 『성경신학적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2.
- Greidanus, Sidney.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김영철 역. 『성경 해석과 성경적 설교』. 서울: 여수론, 2012.
- _____.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김진섭·류호영·류호준 역. 개정판.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하나의 현대적 해석학 방법론』. 서울: 이레서원, 2019.
- _____. *Sola Scriptura*. 권수경 역. 개정판.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역사적 본문에 대한 설교 원리들과 문제점』. 서울: SFC, 2006.
- Grudem, Wayne. *Systematic Theology*. 노진준 역. 재판.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상)』. 서울: 은성출판사, 2009.
- Hendricks, Howard G. and William D. Hendricks. *Living by the Book Workbook*. 정현 역. 개정판.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연구』.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12.
- Horton, Michael. *God of Promise: Introducing Covenant Theology*. Grand Rapids, MI: Baker, 2006.
- Keller, Timothy. *Preaching*. 채경락 역. 『팀 켈러의 설교』. 서울: 두란노, 2016.
- Kuruvilla, Abraham. *A Vision for Preaching*. 곽철호·김석근 역. 수정판. 『설교의 비전』. 이천: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18.
- Larson, Knute and Kathy Dahlen, *HOLMAN Old Testament Commentary: Ezra*.

- Nehemiah, Esther*. 김진석 역. 『에스라·느헤미야·에스더』. 『Main Idea로 푸는』.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8.
- Lischer, Richard. *A Theology of Preaching: The Dynamics of the Gospel*. ed. William D. Thompson. Nashville, Abingdon, 1981.
- Merida, Tony. *Faithful Preaching*. 김대혁 역. 『설교다운 설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 Pink, Arthur Walkington. *Gleaning in Genesis*. 정충하 역. 『아더핑크 창세기 강해』. 파주: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5.
- _____. *The Sovereignty of God*. 전의우 역.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 서울: 요단출판사, 2011.
- Poythress, Vern S. *Theophany*. 김귀탁 역. 『신현』. 서울: 부흥과개혁사, 2020.
- Rad, Gerhard von. *God at work in Israel*. trans. John H. Marks. Nashville: Abingdon, 1980.
- Schreiner, Thomas R. *Covenant and God's purpose for the World*. 임요한 역. 『언약으로 성경 읽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 Sproul, R. C. *Knowing Scriptura*. 길성남 역. 개정2판. 『성경을 아는 지식』. 서울: 좋은 씨앗, 2018.
- _____. *The Promises of God*. 김태곤 역. 『언약: 철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 Vanhoozer, Kevin.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Grand Rapids: Zondervan, 1998.
- Vos, Geerhardus. *Biblical Theology*. 원광연 역. 『성경신학』.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 Weatherhead, Leslie D. *The Will of God*, 이천수 역. 『하나님의 뜻』. 서울: 요단출판사, 1976.
- Wenham, Gordon J.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2: Genesis*. 윤상문·황수철 역. 『창세기(하)』. 『WBC 성경주석』.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1.
- Williamson, H. G. M. *World Biblical Commentary, Volume 16: Ezra, Nehemiah*. 조호진 역. 『에스라·느헤미야』. 『WBC 성경주석』.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8.
- Wolff, Hans Walter. *The Old Testament: A Guide to Its writings*. trans. Keith Crim. Philadelphia: Fortress, 1973.

Abstract

Christ-Centered Theological(Doctrinal) Interpretation Method for Preaching against Shincheonji

Most of the Korean churches have reacted against Shincheonji(the Korean heresy) by warning its propagation strategies or taking the deluded to professional counseling and education systems. However,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e heresy is not how to respond after the problem actually occurred, but how to 'prevent' in advance. Now we need to think about how to protect our precious churches from the Shincheonji and the epigonic. No matter what position one is in church or how long he/she has believed in God, many have been deluded by the Shincheonji because they are lack of the doctrines which could have brought them ability to discern and identify themselves as believers. Many churches have failed to provide those ability to their congregations. Since the final purpose of many Korean heresies'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e Bible and their doctrine educations is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the emergence of a heresy leader who has been deified over Jesus Christ. Shincheonji also distorts Jesus in the same way. Therefore, as a precautionary education, doctrinal preaching based on the "Christ-centered theological interpretation" is required in church. Preachers need a theological frame in which the "Christ-centered"(Christ-centered exegesis, theology and doctrine) Bible reading and interpretation are possible. This study introduces a 'Christ-centered' theological(doctrinal) interpretation method for preaching to cope with Shincheonji.

Key words: prevention, cope with Shincheonji, doctrinal preaching, Christ-centered, theological(doctrinal) interpretation

[발표 2]

고난 설교를 위한 설교학적 제안: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를 중심으로



서지마 박사 (University of Pretoria/ Ph. D.)

I. 들어가는 말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유형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 역시 고난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고난¹⁾이다. 청중은 고난 설교를 통해 자신들이 겪는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 청중에게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Biblical answer to suffering)을 제공해야 한다. 고난은 설교 사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인 설교 주제 중의 하나이며, 반드시 설교자가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 설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고난 설교를 위한 설교학적 연구가 부족하다. 고난에 관한 다양한 성경 신학적 연구와 달리 고난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관한 설교학적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²⁾

설교의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두 가지 과제가 해석과 전달이다.³⁾ 설교는 주어진 본문을 상대로 의미 파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1) 고난(suffering)이라는 용어는 질병이나 고통과 같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사용되거나, 반대로 괴로움이나 슬픔과 같은 주관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의학에서는 고통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지만, 신학에서는 고난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은 완벽하게 분리할 수 없으며, 고통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고통과 고난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서 고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2) Jima Seo & Johann-Albrecht Meylahn, “Redemptive-Historical Narrative Preaching As a Homiletical Alternative for Preaching on Suffering,” *Hts Theologiese Studies* 77 (2021), 1.

3) Haddon W. Robinson, “Homiletics and hermeneutics,” in *Making a Difference in Preaching*, eds. Scott Gibson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1999), 69-84.

해석학적 행위(hermeneutic action)이며, 또한 청중을 상대로 의미의 소통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행위(communicative action)이다. 고난 설교에서도 해석과 전달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첫째, 설교자가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고난 설교가 그 메시지의 정당성(validity)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교자가 본문의 특정한 요소에 집중하여 본문을 원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그 설교는 고난에 관한 본문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단순히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방법만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설교자가 해석을 통해 얻은 내용을 얼마나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고난 설교는 적실성(relevancy)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효과적인 전달 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고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나 피상적인 의미만 전달하는 설교는 고난에 대한 진술이나 해설로 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난 설교를 위한 설교학적 대안으로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를 제안하고자 한다. 앞에서 연구자가 논의한 해석과 전달이라는 설교학의 중요한 두 과제에서 볼 때, 구속사 내러티브는 메시지의 정당성과 적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는 성경의 통일성과 유기성,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 관점(God-centered perspective)을 강조하는 구속사적 설교의 해석과 연속성(continuity)과 움직임(movement)을 강조하는 내러티브 설교의 플롯을 접목한 설교학적 전략이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될 것이다. 첫째, 한국 교회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난 설교의 문제점을 다룰 것이다. 특별히 연구자는 한국 교회의 고난 설교를 분석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설교 분석 방법(Heidelberg method for sermon analysis)을 채택하였다. 설교 분석은 그 범위가 한국 교회와 설교자들에게 국한될 것이며, 해석과 전달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고난 설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논의할 것이다. 둘째,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의 기초 이론을 구성하는 구속사적 설교와 내러티브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평가할 것이다. 구속사적 설교와 관련해서는 Sidney Greidanus를 중심으로, 내러티브 설교와 관련해서는 Eugene Lowry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셋째, 고난 설교를 위한 설교학적 대안으로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를 제안하고 그것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의 필요성과 장점을 논의할 것이며,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의 플롯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단계들을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속사적 내러티브에 관해 평가하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한국 교회의 고난 설교 분석과 문제점들

본 연구는 한국 교회의 고난 설교 분석을 위해 Rudolf Bohren과 Gerd Debus가 제안하고 발전시킨 하이델베르크 설교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고난 설교 분석의 대상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의 목사 5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⁴⁾ 다양한 설교 분석 방법이 있지만, 연구자가 하이델베르크 설교 분석 방법을 채택한 이유는 그것이 설교자의 설교학적 관점과 신학적 관점을 보여주는 탁월한 설교 분석 방법이기 때문이다.⁵⁾ 하이델베르크 설교 분석 방법은 기본적으로 설교학적 질문과 언어학적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자는 설교학적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언어학적 질문들을 통해 설교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설교학적 질문들과 언어학적 질문들을 통한 설교 분석은 설교자가 성경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충실하게 잘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신학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설교 분석을 위해 기존의 하이델베르크 방법론의 질문들을 수정하여 사용할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설교 분석 방법의 질문들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질문을 수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으며, 분석에 필요한 경우 몇 가지 질문을 첨가할 수도 있다.⁶⁾ 효율적인 고난 설교의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몇 가지 질문들을 생략하고, 고난과 관련된 질문을 첨가하였다.⁷⁾ 설교 분석을 통해 연구자는 해석과 전달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교회에서 실행되는 고난 설교의 두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설교자의 자의적 주석과 고난 설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형식의 부재이다.

1) 자의적 해석(eisegesis)

4) 설교 분석을 위해 선정한 교단과 설교자에 대한 근거는 다음을 참고하라. Jima Seo & Johann-Albrecht Meylahn, "Redemptive-Historical Narrative Preaching As a Homiletical Alternative for Preaching on Suffering," 19-21.

5) Johan H. Cillers, *God for us: An analysis and assessment of Dutch reformed preaching during the apartheid years* (Stellenbosch: Sun Press, 2006), 8-11.

6) 박성환, "이상근 목사의 설교 분석: 사도신경의 연속 설교를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회, 「한국개혁신학」 36 (2012): 142-43.

7) 수정된 질문은 다음을 참고하라. Jima Seo & Johann-Albrecht Meylahn, "Redemptive-Historical Narrative Preaching As a Homiletical Alternative for Preaching on Suffering," 2.

자의적 해석이란 설교자가 자신의 독특한 전제나 선이해 혹은 편견에 따라 본문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⁸⁾ 즉,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본문에서 꺼내는 것(out of)이 아니라, 본문에 자신이 원하는 의미를 강제로 주입(into)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고난 설교는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고난의 신학적 의미 혹은 고난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청중에게 바르게 전해줄 수 없다.

설교자들이 자주 범하는 대표적인 자의적 해석의 유형으로는 원자적 해석(atomistic interpretation)과 신학적 선이해(theological preunderstanding)에 근거한 해석이 있다. 원자적 해석이란 설교자들이 본문에 나타난 특정한 요소를 중심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이다.⁹⁾ 예를 들어, O 목사는 본문에 단순히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쁨을 강조한다. 이처럼, 원자적 해석은 인간의 특정한 행위나 혹은 본문에 등장하는 특정한 요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모범적 설교(exemplaristic preaching)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 신학적 선이해에 근거한 해석은 해석자가 본문으로부터 메시지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호하는 신학적 선이해에 근거하여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Y 목사는 고난을 죄와 징벌이라는 인과율적 관점에서만 해석한다. 그러한 해석으로 설교의 메시지가 회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처럼 신학적 선이해에 근거한 해석은 고난의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킬 뿐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노력만을 강조하는 인간중심적인 설교(anthropocentric preaching)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

2) 고난 설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형식의 부재

연역적 형식(deductive form)의 방식은 설교의 주제나 중심 사상을 먼저 밝히고(to be explained), 그것을 증명한 후, 적용하는 것이다.¹⁰⁾ 연역적 형식의 목표는 청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연역적 형식은 교훈적(didactic) 중심의 설교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대중적인 연역적 형식이 포인트 형식(points-making form)이다. 포인트 형식이란 설교의 중심 사상 혹은 설교의 주제를 결정하고 그것을 몇 개의 필수적인 항목으로 세분한 다음, 그 항목들

8) Noah Webster,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 (Springfield, MA: G. & C. Merriam Company, 1976), 364.

9) Sidney Greidanus, *Sola Scriptura: Problems and Principles in Preaching Historical Texts* (Eugene, OR: Wipf & Stock, 2001), 63-64.

10) Haddon W. Robinson,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4), 78-85.

을 설교의 구성 대지로 배열하는 형식이다.¹¹⁾

설교 분석을 통해 연구자는 한국 교회의 고난 설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설교 형식이 연역적 형식(deductive form)임을 발견하였다. 연역적 형식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난 설교에서 연역적 형식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중들이 설교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연역적 형식이 주된 관심이 정보 전달에 있기 때문이다. 고난에 대한 신학적 의미나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일방적인 주입식 전달은 설교를 일종의 강의같이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설교에서 청중은 그저 고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듣는 수신자에 불과하다. 둘째, 청중의 긴장감이나 호기심을 유발하기가 어렵다. 연역적 형식의 설교는 한 편의 설교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작은 설교들로 구성된 개요 중심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다른 아이디어를 가진 대지로 구별되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설교의 메시지가 불연속적이다. Lowry의 지적과 같이, 연역적 형식은 발전(development)이 아닌 건축(construction)의 방식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체로 작동하지 않고 그저 다양한 정보의 결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¹²⁾ 결국 연속성(continuity)과 흐름(movement)이 간과된 연역적 형식의 고난 설교는 청중의 긴장감이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셋째,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설교자가 삼대지 형식(three-point form)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대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본문의 내용에서 벗어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본문은 설교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보조 도구나 증거 구절로 전락할 수 있다.¹³⁾

2. 구속사 설교와 내러티브 설교에 관한 연구

고난 설교를 위한 설교학적 대안으로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를 제안하기에 앞서,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의 이론이 되는 구속사적 설교와 내러티브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속사적 설교와 내러티브 설교는 전통적인 설교학과 신설교학을 대표하며, 각각 해석과 전달에 유익한 설교학적 통찰력과 전략을 제공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구속사적 설교와 내러티브 설교가 가진 한계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11) Robinson, *Biblical Preaching*, 78-79

12) Eugene L. Lowry, *The Homiletical Plot: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8-9.

13) 정창균, “효과적인 설교 전달과 설교 형식의 다양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출판부, 「신학정론」 27 (2009): 310.

1) 구속사적 해석과 구속사적 설교

성경은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록하고 있으며, 구속사¹⁴⁾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¹⁵⁾ 그런 의미에서 Geerhardus Vos는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을 청중에게 밝히는 것이 성경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⁶⁾ 이러한 Vos의 주장은 설교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본문 해석은 단순히 성경해석 방법론을 몇 가지 숙지함으로 해결될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설교자에게 구속사적 관점의 해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신학적 주제와 이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는 역사적 사건, 그리고 그 역사적 사건 속에 담긴 신학을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문학 형식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함께 얽혀져 있다. 따라서 설교자는 본문 해석을 위해 역사, 문학, 그리고 신학의 세 가지 차원을 늘 함께 고려해야 하며, 구속사적 해석을 위해 세 가지 해석이 요구된다. 첫째, 역사적-문법적 해석(grammatical-historical interpretation)은 단어들과 표현들, 장르 등과 같은 문법적인 사항들을 연구하고, 그 본문이 기록된 역사적 상황들, 특별히 저자의 배경과 목적들을 연구하는 것이다.¹⁷⁾ 둘째, 유기적 해석(organic interpretation)은 한 마디로 성경의 어떤 한 본문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 있는 사건으로 보고 성경 전체와의 관련 아래서 해석하는 것이다.¹⁸⁾ 셋째, 종

14) 구속사(Redemptive history, German: Heilsgeschichte)라는 용어는 구원 역사(Salvation history) 혹은 거룩한 역사(Sacred history)라는 용어로 대체되기도 한다. 그러나 구속사라는 용어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실제로 개혁주의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이 용어를 즐겨 쓰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역시 구속사라는 용어를 쓰지만, 이들은 구속사의 역사성(historicity)을 부인하면서 본문이 가지는 실존적인 함의를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Rudolf Bultmann과 그의 추종자들은 케리그마(kerygma)가 꼭 역사적일 필요가 없으며, 그리스도가 역사적 예수와 분리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구속사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구속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역사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와 관련된 구속사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과 정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Jima Seo, "A Homiletical Strategy for Preaching on Suffering: Redemptive-historical Narrative Preaching" (Ph. D. Diss., University of Pretoria, 2021), 124-27.

15) John R. W. Stott, *I Believe in Preaching*, 원광연 역, 『설교론』(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97.

16) Geerhardus Johannes Vos, *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s* (Eugene, OR: Wipf & Stock, 2003), 5-6.

17) Bryan Chapell, *Christ-centred preaching: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5), 77.

18) Sidney Greidanus, *Sola Scriptura*, 135-36.

합적 해석(synthetic interpretation)은 해석자가 본문(사건)을 그 본문의 고유성 안에서 보는 것이다. 즉, 종합적 해석은 본문에 담겨 있는 요소들의 특별한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해석이다.¹⁹⁾

구속사적 해석이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구속사를 목격하는 것이면, 구속사적 설교란 설교자가 구속사적 해석을 통해 얻은 구속사적 메시지를 청중에게 설교하는 것이다. 설교자는 구속사적 해석을 통해 성경 본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그 구속 사역이 주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지금 그리고 여기”(now and here)의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선포한다. 그런 점에서 구속사적 설교는 단순히 본문에 나타난 구속사 혹은 구속 사역을 설명(explain)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 증명(prove)하고 선포(proclaim)는 설교 사역이다. 즉, 구속사적 설교의 목표는 성경이 제시하는 과거의 구속사가 말씀 사역을 통해 현재화(actualize)되도록 하는 것이다.²⁰⁾

구속사적 설교의 설교학적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속사적 설교는 계시 자체의 성경 신학적 특징을 명확히 보여준다. 구속사적 설교는 성경의 단일성과 통일성,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시 사역의 유기적 연속성에 근거를 둔다. 둘째, 구속사적 설교는 신자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에도 적합한 설교이다. 구속사 설교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명확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설교이다.

그러나 구속사적 설교는 아래의 한계들을 안고 있다. 첫째, 설교자가 선불리 구속사적 관점을 본문으로 끌고 올 때, 그 본문 자체의 문법적-역사적 의미를 간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설교자가 역사적-문법적 해석을 무시하고, 해석의 첫 단계부터 무리한 유기적 해석을 시도할 경우, 본문이 가지는 그때 그리고 거기(then and there)의 고유한 메시지가 간과될 수 있다. 둘째, 설교자가 구속사적 의미에 지나치게 집중하다가 설교의 적용을 약화할 수 있다. Greidanus는 기존의 구속사적 설교론자들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대변한다. “설교자의 임무는 말씀에다 적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날 그 모든 적실성-하나님 중심적인 설명에 이미 포함된 적실성-에 맞게 선포하는 것이다.”²¹⁾ 이러한 구속사적 설교를 주장하는 이들은 구속사적 성경해석을 곧 구속사적 설교라고 간주한다. 이런 경우, 구속사적 설교는 적용이 사라진 구속사적 의미(redemptive-historical meaning)만 전하는 하나의 강의를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설교자가 그리스도 중심적 원리에 지

19) Sidney Greidanus, *Sola Scriptura*, 137.

20) 이승진, “구속사 관점에 근거한 설교 목회”,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출판부, 「신학정론」 31 (2013): 132.

21) Sidney Greidanus, *Sola Scriptura*, 160.

나치게 집중하여, 구속사적 설교가 “그리스도 일원론”(Christomonism)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그리스도 일원론이란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예수님을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속사적 설교가 주장하는 그리스도 중심성이란 삼위일체 구속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이지, 구속사에서 성자와 성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말이 아니다.²²⁾ 설교 때마다 나사렛 예수를 언급하는 것을 구속사적 설교의 방법론적 원리로 생각하여 모든 본문에서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은 본문과 예수님을 무리하게 연결하는 풍유적 해석을 초래할 수 있다.

2) 내러티브와 내러티브 설교

“내러티브”(narrative)라는 용어는 최근 설교학에서만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 기독교 윤리 등 기독교 신학의 다양한 분야와 나아가 문학과 인문 사회 과학 분야 그리고 심지어 일반 경영학에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선, 내러티브를 문학적 장르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lasdair MacIntyre(1981), Paul Ricoeur(1984), 그리고 Ruf(1994)와 같은 학자들은 내러티브를 문학의 장르로 간주한다.²³⁾ 그러나 내러티브가 가진 형식적 차원에서 더 나아가 내러티브의 내용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다. Roland Barthes는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언어, 이미지, 제스처, 그러한 요소들의 혼합에 의해 전달되는 문화와 국적을 초월한 인간 공통의 경험을 내러티브라고 정의한다.²⁴⁾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Paul Nelson은 내러티브를 인간의 실존과 실재의 세계를 기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Barthes와 Nelson 모두 동시에 내러티브의 형식적인 문학적 차원도 고려한다. 그들 역시 내러티브가 등장인물, 사건, 행동, 주제, 플롯을 가지고 일관되게 기술되는 문학적 장르로 내러티브를 인식하고 있다.²⁵⁾ 이처럼 내러티브는 ‘경험이 일어나는 배경’, ‘이야기의 주인공’,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드러내는 플롯’ 등이라는

22) Sidney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Interpreting and Preaching Biblical Literature*, (Grand Rapids, MI: W. B. Eerdmans Pub, 1988),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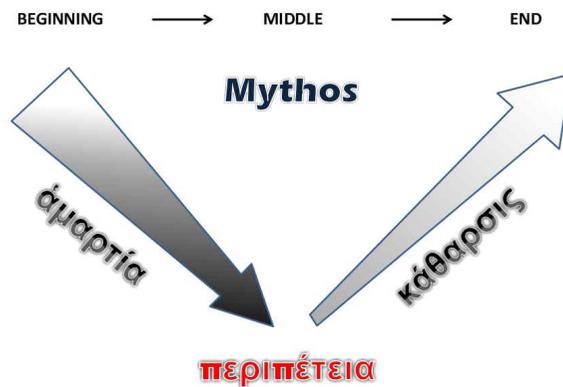
23) A. C. MacIntyre,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Paul Ricoeur, *Time and Narrative*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F. J. Ruf, “The Consequences of Genre: Narrative, Lyric, and Dramatic Intelligibilit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62 (1994).

24) Roland Barthes & Stephen Heath, *Image, Music, Text* (Londo: Fontana Press, 1977), 79.

25) Paul Nelson, *Narrative and Morality: A Theological Inquiry*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87), 49-63.

문학적 구성요소를 갖고 있으며, 단순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화자가 특정한 흐름의 스토리를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내러티브에 대해서 “플롯을 중심으로 시작, 전개, 결말이라는 일정한 구성형식을 갖춘 저자의 의도가 포함된 이야기”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내러티브의 핵심은 이야기가 저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플롯이라고 하는 조직화한 형식을 꾸며내는가에 있다.²⁶⁾ 플롯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이야기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구조를 의미한다. 플롯은 고대 수사학에서부터 사용된 문학적 기술(literary artifice)이다. Aristoteles는 시학(Poetics)에서 플롯(plot/mythos)을 사건들의 배열이라고 정의한다.²⁷⁾ Aristoteles는 플롯이 비극(tragedy)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Aristoteles가 제시한 비극의 구조는 <그림 1>와 같이 시작, 중간, 끝의 플롯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Aristoteles는 플롯이 “실수나 결함”(ἀμαρτία)로 시작하여 “반전”(περιπέτεια)를 거쳐 “정화”(κάθαρσις)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림 1>

설교에서 내러티브는 매우 효과적이다. 그 이유는 설교자가 중심 사상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청중이 중심 사상에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²⁸⁾ Mathewson은 설교에서 플롯이 설교가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략적으로 지연시키면서 계속 긴장을 유지하는 장치로 작용한다고 말한다.²⁹⁾ 내

26) M. H. Abrams,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최상규 역, 『문학용어사전』 (서울: 예림기획, 1997), 97.

27) Aristoteles, *De arte Poetica*, 나종일 역, 『정치학/시학』 (서울: 삼성 출판사, 1999), 133-134.

28) Robinson, *Biblical Preaching*, 90.

29) Steven D. Mathewson, *The Art of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러티브의 중요성은 신설교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Eugene Lowry의 내러티브 설교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제시되었다. 내러티브 설교란 플롯 형태(form of a plot)로 구성된 설교를 말한다. Lowry는 전통적인 설교가 설교를 형성하는 전환 또는 움직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긴장과 호기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설교학적 장치가 바로 설교학적 플롯이다. Lowry는 모든 설교가 자신이 제시하는 homiletical plot을 따를 것을 주장한다.³⁰⁾ Lowry에게 청중의 체험이 설교의 목적이라면, 플롯은 경험을 제공하는 주요 키이다. Lowry는 내러티브 설교의 플롯을 아래와 같이 다섯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³¹⁾ 첫 번째 단계는 모순되는 갈등이나 문제를 제기함으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서론에서 제시된 문제나 갈등이 왜 일어났는지 그 모순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Lowry는 “역전의 원리”(principle of reversal)를 강조한다. 역전이란 우리가 예상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에서 시작된다. 네 번째 단계는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청중들은 인간의 실천적 사고방식(human fulfillment mentality)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경험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결과를 기대하는 단계이다. 전통적인 설교는 마지막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든지 청중의 삶에 본문을 적용한다. 그러나 Lowry는 마지막 단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또 다른 가능성을 향하여 열어놓는 형식으로 설교를 맺는다.

내러티브 설교의 설교학적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교 형식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Lowry는 신설교학자로서 설교의 내용이 형식에 의해서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Lowry는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설교학적 플롯을 수정하며 더욱 발전된 내러티브 설교의 이론들과 실제들을 제시하였다.³²⁾ Lowry는 설교에서 형식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학적 장치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며, 내러티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설교 형식들 역시 설교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청중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이해를 제공했다. 기존의 설교에서는 청중이 본문을 일방적으로 듣는 수동적 위치에 있었다면, Lowry의 플롯은 청중의 관심과 주목을 붙잡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청중이 설교자와 함께 여정(homiletical journey)을 떠나는 참여자가 된다.

이승진 역, 『청중을 사로잡는 구약의 내러티브 설교』 (서울: CLC, 2004), 200-01.

30) Lowry, *The Homiletical Plot*, 22-26.

31) Lowry, *The Homiletical Plot*, 31-79.

32) Eugene L. Lowry, *Doing Time in the Pulpit: The Relationship between Narrative and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85); Lowry, *How to Preach a Parable: Designs for Narrative sermon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89); Lowry, *The Sermon: Dancing the Edge of Mystery*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7).

셋째, 청중에게 반전의 복음을 깨닫도록 한다. Ronald J. Allen은 내러티브 설교가 청중들에게 그들의 삶을 다시 생각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진실한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한다.³³⁾ 갈등이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반전을 통해 해결을 향해 나아가는 플롯의 흐름은 청중에게 자신들이 경험하는 갈등이나 문제가 결국 복음 안에서 해결될 것을 보여줌으로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설교학적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내러티브 설교는 아래의 한계들을 안고 있다. 첫째, 저자의 의도가 왜곡될 수 있다. Thomas Long은 본문의 영향력이 본문의 명제, 즉 저자의 의도와 연결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내러티브 설교의 주장이 틀렸다고 결론짓는다.³⁴⁾ 열린 결론이나 청중 중심의 해석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본문의 의도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위험하다. 둘째, 단순히 청중의 체험을 설교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설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Poythress(1999:52-57)가 제시한 목적의 삼각대에 비추어 볼 때 설교는 다음의 삼중 목적을 가진다.³⁵⁾ 설교는 청중에게 진리를 가르친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돕는다. 설교는 청중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킨다. 이러한 삼중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경험을 설교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 Long은 설교에서 청중의 경험만을 설교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설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한다.³⁶⁾ 셋째, 내러티브 설교가 제시하는 복음이 주관적인 복음으로 대체될 수 있다. Charles L. Campbell은 체험에 대한 강조가 결국 하나님을 즉각적인 인간의 체험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신학적 관계주의”(theological relationalism)로 복음을 전략시킨다고 지적한다. 그는 플롯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야말로 내러티브 설교에서 나타내야 할 복음이라고 주장한다. Campbell는 청중들이 말씀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단순히 플롯만 만드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성경의 이야기, 특히 성경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초점을

33) Ronald J. Allen, *Patterns of Preaching: A Sermon Sampler* (St. Louis, MO: Chalice Press, 1998), 94.

34) Thomas G. Long, *The Witness of Preaching*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6), 125.

35) Vern S. Poythress, *God-Centred Biblical Interpretation*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99), 52-57. Poythress는 *God-Centred Biblical Interpretation*에서 아래와 같이 성경의 삼중 목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Poythress는 삼위일체의 위격들이 상호내재성을 가지는 것(Περίχωρησις)처럼 성경의 삼중 목적들 역시 상호 내재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Poythress의 주장에 근거해서 설교의 목적을 아래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 목적은 서로 상호 보완하며 공존한다.

36) Long, *The Witness of Preaching*, 48.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⁷⁾

3.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

1)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redemptive-historical narrative preaching)의 정의

일반적으로 구속사적 내러티브(redemptive-history narrative)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루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내러티브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³⁸⁾ 성경에 기록된 구속사 내러티브는 설교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특정한 플롯을 통해서 전달될 때, 그 설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청중에게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난 설교를 위한 설교학적 대안으로서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를 제안하고자 한다.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란 성경 본문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하나님 중심의 중심 사상을 발견한 후, 그것을 특정한 플롯을 사용하여 전달하는 설교를 의미한다. 연구자는 해석과 전달이라는 두 가지 설교학적 과제에 구속사적 설교와 내러티브 설교가 가진 각각의 장점들을 접목하였다.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는 성경의 통일성과 유기성, 그리고 본문의 명제를 강조하는 구속사적 설교와 회중에게 말씀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흐름을 강조하는 내러티브의 설교의 장점을 살리는 노력이다. 그런 점에서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는 구속사라는 신학에 근거를 두면서도(theology-based), 한편으로 청중을 지향하는(audience-directed) 통합적 설교 방법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2)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의 필요성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중심성(God-centredness)과 청중 중심성(Audience-centredness)의 통합을 위해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가 필요하다. Wilson은 본문을 읽고 해석할 때,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God Sense)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⁹⁾ Wilson은 설교자의 본문 해석이

37) Charles L. Campbell, *Preaching Jesus: The New Directions for Homiletics in Hans Frei's Postliberal Theology* (Grand Rapids, MI: W.B. Eerdmans Pub, 1997), 142-57.

38) 이승진, "구속사 내러티브를 구현하는 설교목회에 관한 연구",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43 (2017): 93-94.

단순히 역사적 지식이나 종교적인 정보를 얻는 해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설교자가 본문에서 하나님에 관한 진술(God-statement)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⁰⁾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는 구속사적 해석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진술이 담긴 하나님 중심적 중심 사상(God-centered big idea)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님 중심적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그리고 여기의 신자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 중심 사상은 플롯이라는 전략을 통해 청중 중심성을 확보할 수 있다. 청중은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가 제시하는 플롯을 통해 먼저 자신들에게 처한 고난이라는 갈등을 발견한다. 그리고, 심화를 통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며, 삼위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반전을 통해 자신들의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발견한다. 더 나아가, 청중은 그 은혜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 수 있다.

둘째, 본문 중심성(text-centricity)과 본문 적용성(text applicability)의 통합을 위해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가 필요하다. 본문 중심성이란 설교에서 선포하는 본문의 메시지가 성경 본문에 근거한다는 것이고, 본문 적용성이란 설교의 메시지가 청중에게 적용될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Haddon W. Robinson은 현대의 설교가 생명력을 잃게 된 원인을 설교자가 본문의 내용이 아닌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유혹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⁴¹⁾ 따라서 본문 중심성을 유지할 수 있는 특정한 신학적 해석이 요구되며, 본 연구는 그러한 해석으로 구속사적 해석을 제안한다. 구속사적 해석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묻기 때문에, 메시지의 신학적 근거를 본문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으며, 예증적 해석, 단편적 해석, 원자적 해석을 피하도록 도움을 준다. 구속사적 해석을 통해 확보된 본문 중심성은 자연스럽게 본문 적용으로 나아간다. 그 이유는 구속사가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⁴²⁾ 성경의 완성으로 객관적인 구원에 관한 계시는 종료되었더라도, 설교를 통한 구속사의 주관적인 적용은 계시와 역사의 울타리를 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구속사의 객관적인 차원에 관한 계시를 담고 있는 본문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객관적인 해설에 머무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는 Lowry의 열린 결말을 거부하고, 은혜에 근거한 적용까지 제시한다.

39) Paul S. Wilson, *God-Sense: Reading the Bible for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1).

40) Paul S.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A Guide to Biblical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9), 39-44.

41) Robinson, *Biblical Preaching*, 3-4.

42) Geerhardus Johannes Vos, *Biblical theology*, 6.

3) 구속사적 내러티브의 준비 단계

설교 준비에는 본문 연구와 연구된 본문으로 설교화하는 두 가지 과정이 있다.⁴³⁾ 본 연구에서는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의 준비 단계를 두 가지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 준비의 첫 번째 단계는 본문 연구이다. 이 과정에는 여기에는 본문 관찰, 본문 주해,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 중심 사상 도출이 포함된다. 본문 관찰은 본문을 읽고 파악하는 과정이다. 설교자는 본문 관찰에서 본문에 대한 주도면밀한 관찰을 통해 본문의 분위기와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한다. Bryan Chapell의 충고와 같이, 설교자는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을 신중히 그리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⁴⁴⁾ 본문 주해는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방법을 통해 본문의 의미들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주해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해석이 바로 문법적-역사적 해석이다. 우리는 원래의 성경 독자들과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언어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리고 시간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⁴⁵⁾ 이러한 간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이 되는 해석이 바로 문법적-역사적 해석이다. 문법적-역사적 해석은 본문의 단어들과 표현들, 장르 등과 같은 문법적인 사항들, 그리고 그 본문이 기록된 역사적 상황들을 연구한다. 그러나 본문 주해가 문법적-역사적 해석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본문의 신학적 차원을 무시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성경 본문은 신학과 역사, 그리고 형식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문 해석을 위해 신학적 해석이 요구되며, 본 연구는 신학적 해석으로서 구속사적 해석을 제안한다. 구속사적 해석은 유기적 해석과 종합적 해석을 포함하는 해석이다. 유기적 해석은 성경의 통일성에 근거한 해석으로, 전체적 맥락에서 본문을 보는 것을 강조하며, 종합적 해석은 본문의 고유성을 밝히는 해석으로서 본문의 고유한 요소들을 강조한다. 본문의 하나님 중심적 중심 사상 도출은 하나님께서 중심인물(the main character)이 되는 본문의 중심 사상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Greidanus와 Wilson은 공통으로 설교의 메시지가 인간중심적인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⁶⁾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구속사적

43) Fred B. Craddock,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10), 84.

44) Bryan Chapell, *Christ-centred preaching*, 107.

45) J. Scott Duvall & J. Daniel Hays, *Grasping God's word: A Hands-on Approach to Reading,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Bible*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5), 19-20.

46)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113-14;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39-40.

내러티브 설교의 중심 사상을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밝히는 하나님 중심적 중심 사상이라는 용어로 제안한다. 청중은 하나님 중심적 중심 사상을 통해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난의 진정한 해결자가 하나님이 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 중심적 중심 사상은 Robinson의 중심 사상의 구성⁴⁷⁾을 참고하여, 하나님 중심적 주제(God-centered subject)와 하나님 중심적 보어(God-centered complement)로 구성되었다. 하나님 중심적 주제는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 중심적 보어는 이 본문이 하나님 중심적 주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다.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 준비의 두 번째 단계는 플롯 배열이다. 이 단계는 본문 해석을 통해 얻은 하나님 중심적 중심 사상에 움직임과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Hans Urs von Balthasar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학적 갈등에 대한 문제를 드라마 이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⁴⁸⁾ Balthasar는 신적 드라마의 3요소로서 저자인 하나님, 연출자인 성령, 그리고 배우인 인간을 소개하며, 드라마의 실현(realization)을 위한 요소로서 표현, 관객, 그리고 지평을 구분해서 논의한다.⁴⁹⁾ Balthasar에게 영향을 받은 Kevin Vanhoozer도 자신만의 독특한 드라마 이론을 제안한다. 그러나 Vanhoozer는 세계보다는 텍스트인 성경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근거하여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을 설명한다. Vanhoozer의 드라마 이론은 창조, 이스라엘, 예수, 교회, 종말이라는 5막으로 구성된다. Vanhoozer는 이러한 흐름에 근거하여 드라마 이론에 근거하여 교리, 교회, 그리고 배우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한다.⁵⁰⁾ Balthasar과 Vanhoozer가 주장하는 각각의 드라마 이론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두 이론에 기본적인 공통점도 있다. 그것은 “구원론”(soteriology)이라는 기독교 신학의 중심 사상을 드라마라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 담아내려 시도한 것이다. 즉,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한 큰 경륜과 계획이 기록된 하나의 신적 드라마(Theo-drama)라고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신적 드라마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드라마가 대반전

47) Robinson, *Biblical Preaching*, 16-26.

48) H. U. Von Balthasar, *Theo-Drama: Theological Dramatic Theory. Volume II: The Dramatis Personae: Man in God*, trans. G. Harrison (San Francisco, CA: Ignatius Press, 1990), 91.

49) H. U. Von Balthasar, *Theo-Drama: Theological Dramatic Theory. Volume I: Prolegomena*, trans. G. Harrison (San Francisco, CA: Ignatius Press, 1988), 268-342.

50) Kevin J. Vanhoozer, *The Drama of Doctrine: A Canonical-Linguistic Approach to Christian Theolog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12.

(The Great Reversal)의 내러티브라는 점이다.⁵¹⁾ 신적 드라마는 “창조-타락-구원-재창조”라는 독특한 흐름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인간은 하나님과 더욱 멀어졌고, 율법은 오히려 인간이 가진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impossibility)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이 단계를 앞에서 논의한 Aristoteles의 용어를 빌리자면, ἀμαρτία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인류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도록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반전이였다. 이 단계를 앞에서 논의한 Aristoteles의 용어를 빌려 περιπέτεια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주적 대반전으로 죄인들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능성(possibility)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때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실 것이다. 이 단계를 Aristoteles의 용어를 빌려 κάθαρσις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교는 단순히 하나님의 신적 드라마에 대한 설명에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한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직설법(indicative)과 명령법(imperative)이라는 구조를 통해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을 서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한다. 이러한 직설법과 명령법의 구조는 설교에도 적용할 수 있다. John Stott가 지적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참된 사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에 관해 철저히 사려 깊게 선포하고자 주의를 기울이며, 그런 뒤에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진지하고 치열하게 호소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있어야만 한다”.⁵²⁾ J. V. Fesko는 구원 역사에 근거한 이러한 설교의 직설법과 명령법의 구조를 가리켜 “구원의 어법”(the grammar of salvation)이라고 표현한다.⁵³⁾ 설교자는 구원의 어법을 따라 청중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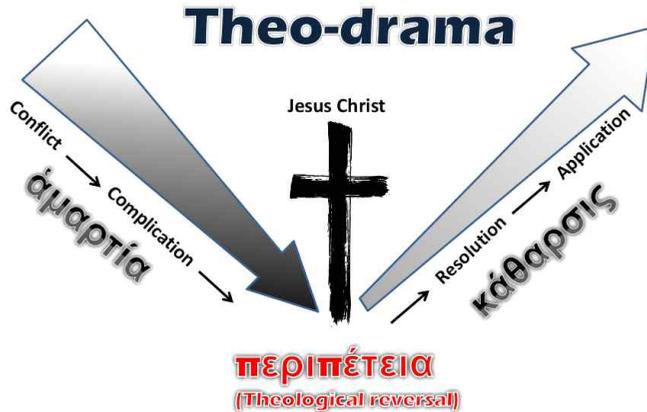
51) Allen Verhey, *The Great Reversal: Ethics and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 W. B. Eerdmans Pub, 1984), 94; Andrew Steinmann & Michael Eschelbach, *Called to be God's People: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Eugene, OR: Wipf & Stock, 2006), 95.

52) John R. W. Stott, *The Preacher's Portrait* (London: Tyndale Press, 1961), 51.

53) J. V. Fesko, “Preaching as a Means of Grace and the Doctrine of Sanctification: A Reformed Perspective,” *American Theological Inquiry* 3 (2010, Jan): 49.

해 선포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근거한 적실성 있는 적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고난 설교를 위한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의 플롯을 제안한다. 이 플롯은 Lowry의 Homiletical Plot을 신적 드라마에 비추어 제시한 것이며, 앞에서 논의한 구원의 어법에 근거하여 적용을 추가하였다.



<그림 2>

(1) 갈등(conflict)

설교의 도입부에서 갈등을 제시하는 이유는 그것이 청중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에서 주의할 점은 갈등이 본문의 하나님 중심적 중심 사상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Lowry의 내러티브 설교에서 제안하는 갈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Lowry의 내러티브 설교는 단순히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자극하기 위해 갈등을 제기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었다. 갈등을 성경 본문이 아닌 청중의 삶으로부터 도출할 경우, 인간의 상황이 설교의 중심 사상을 결정하게 되며, 본문의 의도를 왜곡할 수 있다.⁵⁴⁾ 그런 점에서 플롯의 갈등은 성경 본문으로부터 찾는 것이 옳다. 성경의 모든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의 죄된 본성과 결과들을 보여준다.⁵⁵⁾

54) 류응렬, “새 설교학: 최근 설교학에 대한 개혁주의적 평가”, 신학지남사, 「신학지남」 72 (2005):200-01.

55) Chapell, *Christ-centred preaching*, 105-06.

(2) 심화(Complication)

갈등을 통해 설교자가 청중의 참여를 끌어냈다면, 다음 단계는 그 갈등을 심화하는 단계이다. Lowry는 심화의 목적이 우리 인간이 처한 갈등이나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복음에 기초한 치료책의 발견을 기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⁵⁶⁾ 그러나 본 연구는 고난이라는 독특한 주제와 관련하여, Lowry가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가 제안하는 심화의 목적을 인간에게 고난을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impossibility)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갈등이나 문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심화할 수 있다. 첫째, 갈등을 오늘날 청중들과 연관된 예나 예화들을 사용하여 심화하는 것이다. 둘째, 갈등을 성경의 이야기나 예들을 사용하여 심화하는 것이다. 셋째, 앞에서 논의한 방법들을 혼합하여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각각의 예들을 적절히 잘 배치해야 한다.

(3) 신학적 역전(Theological reversal)

본문에 충실한 설교라면, 갈등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하심을 보여주는 특별한 신학적 움직임(theological movement)이 있어야 한다.⁵⁷⁾ 갈등과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이제 설교에서 필요한 것은 인간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에서는 역전이라는 용어 대신에 “신학적 역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Aristoteles의 시학이나 Lowry의 내러티브 설교에서 역전이 문학적 장치로서의 반전을 의미하였다면,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에서 말하는 신학적 역전이란 회복과 은혜로의 특별한 하나님의 행동과 관련된 역전을 의미한다. Paul Scott Wilson은 하나님의 행동을 거의 모든 성경 본문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⁵⁸⁾ 설교자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찾아야 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자의 삶에서 본문과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선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Wilson은 설교자가 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거나 하나님의 활동들을 나열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⁵⁹⁾ 신학적 반전은 현재형 시제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다.⁶⁰⁾

56) Lowry, *The sermon*, 66-70.

57)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156-57.

58)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161.

59)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158-161.

(4) 해결(Resolution)

여기서 말하는 해결은 설교자가 청중에게 고난을 극복할 대안이나 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가 말하는 해결이란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학적 반전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라면, 해결은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다. Johan H. Cilliers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설교는 청중의 영안을 열어 그들로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것이다.⁶¹⁾ 청중은 갈등과 심화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불가능의 영역임을 깨닫지만, 신학적 역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통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 이제 해결에서 설교자는 청중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선포한다. 그런 점에서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가 제안하는 해결은 다음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진다. 첫째, 종말론적 성격을 가진다. 해결은 종말론적 교리나 명제들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약속들을 선포하는 것이다. 둘째로, 해결은 선포적인 성격을 가진다. 설교자는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대해 담대하게 선포한다.

(5) 적용(Application)

Lowry는 플롯이 열린 결말로 끝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는 플롯의 마지막 단계로 적용을 추가하였다. 플롯에서 적용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교가 단순히 과거에 발생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객관적인 해설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이다. Dennis M. Cahill은 설교가 본문에 있는 문제로 시작하고, 복음 안에서 그것의 해결을 향해서 나아갔다면, 이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⁶²⁾ 신약의 서신서의 논리를 빗대어 설명하자면, 설교는 역사 속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천명하는 직설법의 진술(indicative description)에 머무를 수 없고, “그러므로”(γὰρ)라는 접속사 이후에 등장하는 명령법의 적용(imperative application)까지

60) Donald R. Sunukjian, *Invitation to Biblical Preaching: Proclaiming Truth with Clarity and Relevance* (Grand Rapids, MI: Kregel Publications, 2007), 12.

61) Johan H. Cilliers, *The Living Voice of the Gospel: Revisiting the Basic Principles of Preaching* (Stellenbosch: Sun Press, 2004), 123.

62) Dennis M. Cahill, *The Shape of Preaching: Theory and Practice in Sermon Design*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7), 56.

포함해야 한다.⁶³⁾ 둘째로, 청중의 변화가 설교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Bryan Chapell은 적용이 있는 설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한다.⁶⁴⁾ 설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즉, 설교는 청중을 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있다.⁶⁵⁾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이유에 따라 플롯의 마지막 요소로 적용을 제시하는 바이다.

Ⅲ. 나가는 글

본 연구는 고난 설교를 위한 설교학적 대안으로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는 고난 설교를 위한 하나의 설교학적 대안에 불과하지,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가 고난 설교에 적합한 유일한 성경적 설교라고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 고난 설교를 위한 완전한 형식이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고난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잘 드러내고, 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설교학적 고민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연구자는 그 대안으로 전통적 설교학의 구속사적 설교와 신설교학의 내러티브 설교를 조화시킨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를 제안하였다.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하기 때문에, 본문의 권위를 무시하고 전달에 치중하는 신설교학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한다. 구속사적 해석은 청중이 오늘날에도 고난을 겪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반면,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가 가진 플롯은 설교에 신적 드라마의 연속성과 움직임을 부여하기 때문에, 딱딱한 명제나 정보만 전달하는 전통적 설교를 극복하도록 돕고, 청중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끈다. 이처럼, 구속사 내러티브는 구속사적 설교와 내러티브 설교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개선하고 장점은 고수하면서 현대 설교학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는 청중에게 은혜에 합당한 적용을 플롯에 포함하여 신자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를 성경의 다양한 장르에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성경의 각 장르의 특징들을 고려한다면, 더욱 풍성한 구속사적 내러티브

63) 류응렬, “바울의 설교를 통해 본 개혁주의 설교: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신학지남사, 『신학지남』 71 (2004): 145.

64) Chapell, *Christ-centred preaching*, 54.

65) Sunukjian, *Invitation to Biblical Preaching*, 12.

설교가 될 것이다. 둘째, 구속사 내러티브 설교가 고난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설교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구속사 내러티브 설교가 고난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설교를 위한 좋은 도구가 되리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 류응렬. “바울의 설교를 통해 본 개혁주의 설교: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신학지남사. 「신학지남」 71 (2004): 142-61.
- _____. “새 설교학: 최근 설교학에 대한 개혁주의적 평가”. 신학지남사. 「신학지남」 72 (2005): 183-207.
- 박성환. “이상근 목사의 설교 분석: 사도신경의 연속 설교를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회. 「한국개혁신학」 36 (2012): 132-77.
- 이승진. “구속사 관점에 근거한 설교 목회”.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출판부. 「신학정론」 31 (2013): 127-60.
- _____. “구속사 내러티브를 구현하는 설교목회에 관한 연구”.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43 (2017): 79-112.
- 정창균. “효과적인 설교 전달과 설교 형식의 다양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출판부. 「신학정론」 27 (2009): 291-321.
- Abrams, M. H.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최상규 역. 『문학용어사전』. 서울: 예림기획, 1997.
- Akin, David L, et al. *Text-driven Preaching: God's Word at the Heart of Every Sermon*. Nashville, TN: B & H Academic, 2010.
- Allen, Ronald J. *Patterns of Preaching: A Sermon Sampler*. St. Louis, MO: Chalice Press, 1998.
- Aristoteles. *De arte Poetica*. 나종일 역. 『정치학/시학』. 서울: 삼성 출판사, 1999.
- Balthasar, H. U. Von. *Theo-Drama: Theological Dramatic Theory. Volume I: Prolegomena*. trans. G. Harrison. San Francisco, CA: Ignatius Press, 1988.
- _____. *Theo-Drama: Theological Dramatic Theory. Volume II: The Dramatis Personae: Man in God*. trans. G. Harrison. San Francisco, CA: Ignatius Press, 1990.
- Barthes, Roland & Heath, Stephen. *Image, Music, Text*. Londo: Fontana Press, 1977.
- Cahill, Dennis M. *The Shape of Preaching: Theory and Practice in Sermon Design*.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7.
- Campbell, Charles L. *Preaching Jesus: The New Directions for Homiletics in Hans Frei's Postliberal Theology*. Grand Rapids, MI: W.B. Eerdmans Pub, 1997.

- Chapell, Bryan. *Christ-centred preaching: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5.
- Cilliers, Johan H. *The Living Voice of the Gospel: Revisiting the Basic Principles of Preaching*. Stellenbosch: Sun Press, 2004.
- _____. *God for us: An analysis and assessment of Dutch reformed preaching during the apartheid years*. Stellenbosch: Sun Press, 2006.
- Craddock, Fred B.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10.
- Duvall, J. Scott & Hays, J. Daniel. *Grasping God's word: A Hands-on Approach to Reading,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Bible*.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5.
- Fesko, J. V. "Preaching as a Means of Grace and the Doctrine of Sanctification: A Reformed Perspective." *American Theological Inquiry* 3 (2010, Jan) 35-54.
- _____.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Interpreting and Preaching Biblical Literature*. Grand Rapids, MI: W. B. Eerdmans Pub, 1988.
- Greidanus, Sidney. *Sola Scriptura: Problems and Principles in Preaching Historical Texts*. Eugene, OR: Wipf & Stock, 2001.
- Long, Thomas G. *The Witness of Preaching*.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6.
- Lowry, Eugene L. *Doing Time in the Pulpit: The Relationship between Narrative and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85.
- _____. *How to Preach a Parable: Designs for Narrative sermon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89.
- _____. *The Sermon: Dancing the Edge of Mystery*.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7.
- _____. Eugene L. *The Homiletical Plot: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 MacIntyre, A. C.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 Mathewson, Steven D. *The Art of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이승진 역. 『청중을 사로잡는 구약의 내러티브 설교』. 서울: CLC, 2004.

- Nelson, Paul. *Narrative and Morality: A Theological Inquiry*.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87.
- Poythress, Vern S. *God-Centred Biblical Interpretation*.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99.
- Ricoeur, Paul. *Time and Narrative*.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Robinson, Haddon W. "Homiletics and hermeneutics." in *Making a Difference in Preaching*. eds. Scott Gibson.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1999.
- _____.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4.
- Ruf, F. J. "The Consequences of Genre: Narrative, Lyric, and Dramatic Intelligibilit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62 (1994) 799-818.
- Seo, Jima & Meylahn, Johann-Albrecht. "Redemptive-Historical Narrative Preaching As a Homiletical Alternative for Preaching on Suffering." *Hts Teologiese Studies* 77 (2021) 1-8.
- Steinmann, Andrew & Eschelbach, Michael. *Called to be God's People: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Eugene, OR: Wipf & Stock, 2006.
- Stott, John R. W. *The Preacher's Portrait*. London: Tyndale Press, 1961.
- _____. *I Believe in Preaching*. 원광연 역. 『설교론』.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 Sunukjian, Donald R. *Invitation to Biblical Preaching: Proclaiming Truth with Clarity and Relevance*. Grand Rapids, MI: Kregel Publications, 2007.
- Vanhoozer, Kevin J. *The Drama of Doctrine: A Canonical-Linguistic Approach to Christian Theolog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 Verhey, Allen. *The Great Reversal: Ethics and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 W. B. Eerdmans Pub, 1984.
- Vos, Geerhardus Johannes. *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s*. Eugene, OR: Wipf & Stock, 2003.
- Webster, Noah.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 Springfield, MA: G. & C. Merriam Company, 1976.

- Wilson, Paul S.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A Guide to Biblical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9.
- _____. *God-Sense: Reading the Bible for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1.

Abstract

A Homiletical suggestion for preaching on suffering: Redemptive-historical narrative preaching

Seo, Ji-Ma

Humans live by experiencing various types of sufferings. Suffering is inevitable as a Christian and must go through. For this reason, it is evident that one of the topics of great interest in congregations is the question of suffering. However, compared to various theological studies on suffering, it is difficult to find a homiletical study on suffering. This study aims to present redemptive-historical narrative preaching as a homiletical strategy for preaching on suffering. Redemptive-historical narrative preaching can be a homiletical alternative for preaching on suffering because it improves the weaknesses of the traditional homiletic and new homiletic and further developing their strengths. In this study, first, the researcher will identify the main problems of preaching on suffering. Second, the researcher will discuss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and narrative preaching that are the foundation of redemptive-historical narrative preaching. Finally, the researcher shall propose and explain the redemptive-historical narrative preaching in detail.

Key Words: preaching on suffering,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narrative preaching, *περιπέτεια* (reversal), God-centered big idea.